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naver.com

2008. 11

통권 149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www.innekorean.or.id



SHE'S GOT THE BEST FIGURE OF THEM ALL

Scarlet LG60 is beautiful, front and back, inside and out. She is flawlessly designed and engineered to outperform. At just 44.7mm wide, and with her Full HD 1080P resolution, 100Hz refresh rate, and smart technology like Intelligent Sensor,[™] she's got beauty and the brains to match. Scarlet LG60 Full HD 1080P LCD TV. Meet the newest Scarlet TV at a store near you or visit www.lgscarlet.tv

scarlet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흥겨운 교민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8

송년의 밤

행사내용

- 1부 - 연말 공식행사
- 2부 - 연회 및 공연



행운권 추첨

LCD TV, 대형피아노, 한국왕복티켓, 고급핸드폰 등 푸짐한 상품이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6:30

장소 Hotel Mulia Senayan, Grand Ballroom

참가비 Rp 400,000.-/1인

입장권 판매처

한인회, 무궁화유통(전 매장), 뉴서울 슈퍼, 한일마트, K-마트

입장권 판매일시 11월 17일 ~ 11월 29일 (선착순 1000명)

주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Tel. 021) 521-2515, 527-7539

Fax. 021) 521-2486, 5296-0586

송년의 밤 행사 찬조 행운권 상품을 찬조 해 주실 교민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에 기입하시고 12월 2일 까지 찬조품과 함께 한인회 사무국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사(인)		연락처	
상품명		상품 수량	



PT. EUROASIATIC HEAT & POWER SYSTEMS
 Jl. Raya Daan Mogot No. 44
 Jakarta 11460, Indonesia
 T | (62.21) 5696.0555
 F | (62.21) 5696.6132/5696.6133
 E | heatandpower@euroasiatic.com

가스 엔진 발전 설비 &

WAUKESHA GAS ENGINE
 (DRESSER USA)
 POWER ENERGY PARTNER



DRESSER® Waukesha

APG1000	1,000 kW	1,500 RPM
APG2000	2,100 kW	1,500 RPM
APG3000	3,200 kW	1,500 RPM

에너지 원가 절약

다방면의 높은 열 회수율
 모듈화 & 내구성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발전 설비

최대 사용 시간 & 원격제어 운전
 분리 및 이동 용이

10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신속한 가동 시간 (높은 Load step)
 검증된 기술 서비스 제공

유동적이며 낮은 연료 소모

턴키 방식의 기계 & 전력 시공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

최고의 효율 보장

신속한 운송 및 짧은 설치 기간

저소음 & 저진동 설계

가스엔진 관련 모든 Spare parts 보유/
 인도네시아 내 신속히 공급 가능

COMBINED HEAT & POWER SYSTEMS

- gas turbine + waste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gas turbine + waste heat recovery thermal oil heater
- gas turbine + waste heat recovery hot water generator
- gas turbine + exhaust gas/steam/hot water driven absorption chiller
- gas turbine + direct heating (dryer)
- gas turbine + waste heat recovery boiler + steam turbine

USAGE

- continuous power generation supply
- peak shaving power generation supply
- standby/back-up emergency power generation supply

HOT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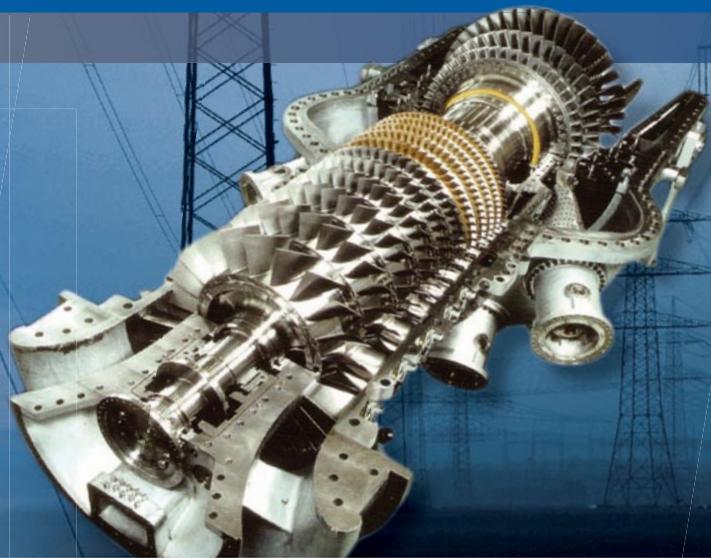
Mr. Park Joung Yoon : 0816.852.018
Mr. Shim Young Bin : 0815.1053.6707
Mr. Park Kun Ha : 0816.770.251

HOTLINE

E | kawasaki.turbine@euroasiatic.com
waukesha.engine@euroasiatic.com
T | (+62.21) 5696.5756
F | (+62.21) 5696.5759

열병합 시스템

(GAS FIRED POWER GENERATION & COGENERATION SOLUTIONS)



KAWASAKI GAS TURBINE
(KAWASAKI HEAVY INDUSTRIES JAPAN)

EXCLUSIVE DISTRIBUTOR



GPB 15	M1A-13A	1,490 kW
GPB 30	M1T-13A	2,930 kW
GPB 60	M7A-01	5,530 kW
GPB 70	M7A-02	6,800 kW
GPB 80	M7A-03	7,440 kW
GPB 180	L20A	17,840 kW

APPLICATIONS

- open cycle
- cogeneration
- combined cycle
- trigeneration

SET-UP/MODE

- mains parallel operation
- genset parallel operation
- island operation
- base load & floating load

PROPOSAL

- full turn-key
- semi turn-key

에너지 원가 절약

다방면의 높은 열 회수율
모듈화 & 내구성 강화

일본의 대표적인 발전 설비

최대 사용 시간 & 원격제어 운전

분리 및 이동 용이

7,000대 이상의 플랜트 시공 실적 보유

신속한 가동 시간 (높은 Load step)

검증된 기술 서비스 제공

유동적이며 낮은 연료 소모

턴키 방식의 기계 & 전력 시공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

최고의 효율 보장

신속한 운송 및 짧은 설치 기간

저소음 & 저진동 설계

가스터빈 관련 모든 Spare parts 보유/
인도네시아 내 신속히 공급 가능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 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한인뉴스 커버사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14명의 숙명가야금연주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의 명곡들을 한국이미지 물씬 나는 가야금 가락으로 연주해 객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는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공통의 언어로 어느새 모든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는 그 묘함을 느낄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인뉴스 표지사진을 찾습니다. 교민들이 일상에서 담은 사진중 커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Langsung 한인뉴스 (haninnews@naver.com)로 포토스토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매월 채택되신분께 약소하지만 1년 정기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꾸벅 (--) (__)

원고/기사를 보내주세요!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 /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Tel: +62 21 536 77 000

Fax: +62 21 536 77 300

Frans (Marketing)

Tel: +62 21 6820 1000

자일리톨함유로
더 깔끔하고
더 부드럽다!



깨끗한 아침, 참소주

WWW.CHARMSOJU.COM



KUM BOK JU CO., LTD.

참소주 전속모델 이수경



9

9 한인사회 소식

-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오픈
- 韓商 교류 넘어 '사업의 場'으로 정착
- 정진철 회장 한인뉴스에 미화 1만불 기증
- 김문환씨, 사회발전 공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여
- 한인상공회의소, 무역부 장관 초청 간담회
- 인니 삼성전자 법인, 인니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 '한-인니 문화교류축제', 자카르타서 곳곳에서 개최
- 한국문화의 첨병 한글교사들 동남아 한자리에 모였다.
- 이영희 노동부장관 방문 동포간담회 개최
- 교민대표, 국회의원 5인 초청 동포간담회 열어
- 코린도, 우리투자증권과 인니 금융시장 본격 진출
- 땅그랑에뿌리내리는 품격의 장년 문화
- 제1회 무궁화 배 야구대회 개최
- 코이카, 아체에 이동식 크레인 지원
-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차 워크샵 개최
- KOTRA, 스마랑 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세미나 개최
- 강남훈 재외동포재단 이사 한인회 방문
- 제2차 한-인니 에너지 포럼 자카르타서 개최



27



32

27 인터뷰 이사람 - 한인뉴스 후원회

31 해피센터가 오픈 되었습니다

32 건강칼럼 - 소화기를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부아 블레와

34 시사포커스 7

'9.30사태' 의 전말(顛末) 제3부 一日 天下

38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6

41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상)

44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창으로 고래잡이하는 사람들 (하편)

48 법률상식 - 계약법 4 (Perikatan)

51 인니문화탐방 - 역사의 파도 속에 맞혀진 섬 온러스트

56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8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 합리적 인사사고과 설계

60 JIKS 책마루 도서관 안내

62 월스트리트를 집어 삼킨 괴물

64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68 신간도서 안내

65 경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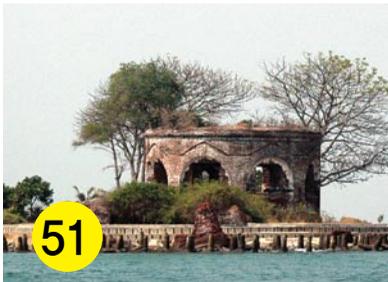
70 생활정보 가이드

74 영화안내

76 11월 공지사항



34



51



56

Wastafelmu sudah usang.



62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송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김은미, 김남규,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오픈

지난 10월 17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교민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코리아센터 내에 ‘문화회관’을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승은호 회장, 김호영 대사, 신상석 예총회장 등 50여명의 문화인들이 참여해 교민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회관 개관을 축하했다. 특히 인재 손인식 서예가는 문화회관을 위해 특별히 현판을 제작해 기증했다.

문화회관 건립은 올 1월 한인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2008년 중요사업으로 문화회관 신설이 확정된 후, 2월 문화회관 리모델링 업체 선정하고 문화회관 조감도 확정 및 문화회관 후원금모집 홍보 및 도서관 양서확충 캠페인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그 모습을 찾아갔다.

또한 한인회 승은호 회장 1만불, 부회장단 1인 각 5천불씩을 리모델링 공사 후원금으로 흔쾌히 기부해 4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수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7월 기초 공사를 마치게 됐다.

한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석용치(대엽 인도네시아 대표)씨가 2천만 루피아와 250여 도서 기부, 대교 인도네시아는 500부 신간도서 기증 등 교민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양서들과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인회를 위해 기증, 기부해주신 분들을 하기 표에 밝힙니다)



한인회는 우리 교민들의 문화적 열망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자 정성으로 마련된 이곳 ‘문화회관’에서 한인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회관 살짝 둘러보기

작은 공간, 넉넉한 도서관

한인회 강당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둔 부분이 바로 도서관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현재 3천여 권의 서적을 준비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상과 걸상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도서대여도 할 수 있다. 한인회는 1만부 도서확충을 위해 주기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



서증을 원하시는 교민들께선 주저없이 한인회로 연락바랍니다. (사무국 : 021-521-2515)

편안한 휴식공간

강당 중앙부에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파들을 준비했다. 동행인이 둘 셋 정도라면 주위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다운 대화를 나눠보자. 약속시간이 어정쩡 남아 있다면 잠깐 들러 커피 한잔 마셔볼만 하다. 음료수는 1잔에 3000루피아이다.



한국 방송과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가끔 짬을 내어 한국 방송을 통해 새로운 시사정보들을 접하자. TV를 시청할 때 옆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이를 생각해서 볼륨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해주는 에티켓을 보여주자.

교민들이 함께 일귀서 가꾸어 가는 것이 한인회 강당 리노베이션의 궁극적 목표다. 한인사회의 대표 대변기관으로서 한인회가 교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바람도 깃들여 있다. 이런 면에서 한인회 강당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만이 아닌 우리 교민사회의 의사 소통의 창구를 독특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는 행복과 신뢰로서 상호 의지해 나가는 멋진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한인회 강당을 애용해 주시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후원자 및 도서기증자

1. 문화회관 리모델링 비용 후원

(총 6만5천불, 2천만 루피아)

1만불 : 승은호

5천불 : 김재유, 박현식, 배도운, 송창근, 신기엽, 이진수, 조규철, 조종수, 이민재

2천만 루피아 : 석웅치

2. 도서구입비용 후원

한화 1000만원) : 서부발전 손동희 사장

3. 문화회관 시설 기증

LG 전자 : 에어컨2대, LCD TV 1대, LCD 모니터 2대

김창모 : 냉장고 1대,

김준규 : 비데 2대

4 도서기증자

도서 기증자	내용 및 권수	
김병철	구원자 예수 외	30
김세형	자신감 외	5
김소연	시대의 우울 외	99
김우재	사랑의 진혼곡 외	161
김준규	후회없이 살아가 외	18
문영주	나무	1
박영근	괴짜 경제학 외	3
박용민	국제금융론 외	12
사공경	자카르타박물관노트 외	6
석웅치	대지 외	303
손인식	지금여기 외	14
송광중	야생초 편지 외	6
승은호	개미 왜	35
오세윤	성역은 없다 외	68
유병준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외	37
윤태광	상도 외	15
이완식	리진 외	8
이은희	향수 외	30
장영수	연금술사 외	107
장영수	족자비안 나이트 외	51
전제성	인권평론 외	2
정무웅	물있는 사막 외	40
조규철	좁머씨 이야기 외	93
추기성, 권일화	세상 너머의 세상 외	19
서울고 동문화	한국문화 외	44
주석찬	다빈치 코드 외	500



한인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 문제중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법인장(왼쪽)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인니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이번엔 새로 확대, 개관한 한인 문화회관에 도서구입 자금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인니 남부수마트라 지역에 400MW 석탄발전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손동희 사장은 지난달 9월 인니 전력

공사와의 MOU 서명식에 참석차 방문했으며,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한인 문화회관의 열악한 소식을 듣고 도서구입에 필요한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의해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한국서부발전은 약 9,000MW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자재 수출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해외발전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해외신규사업 개발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소외계층인 양로원, 고아원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갓 넘어온 딱딱딱한 도서 500여권을 기증한 대교 인도네시아의 주석찬 대표. 한국 대교 본사에서 해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양서 나눠주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민들에게 읽고 싶을 만한 도서를 보내왔다. 주석찬 대표는 도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민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사회를 발전을 위해서라면 항상 맨 먼저 앞장서고 있는 대엽의 석용치 사장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 2000만 루피아와 개인소장 장서 303권을 기증했다. 문화회관 개관식에 참석한 석용치 사장은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교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조금이나 일조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전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 스스로 가꾸어 가는 모습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한인회 운영위원총회에서 김우재 한인회 이사(무궁화 그룹 회장)는 당시 한인회가 벌이고 있는 도서확충 캠페인에 동참, 161권의 장서를 한인회에 기증하며 도서확충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 리딩 CEO' 들이 10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화합과 교류 협력을 다지는 1천500인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韓商 교류 넘어 '사업의 場'으로 정착

무역상담 총 2291건 · 5억6400만달러 / 리딩CEO 20명 “2천만弗 고국 송금”

韓商통해 경제위기 난관 극복 비전 제시

지난 10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세계 한상대회가 30일 오후 한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화려하게 폐막됐다. 특히 이번 한상대회를 이끈 장본인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회장(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써 인도네시아 상공인들에겐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의 활성화를 이끌어냈고, 한상을 통해 경제위기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한 제주도 역시 150억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자평했다.

특히 2000명이 넘는 국내경제인들의 높은 참여 열기는 한상을 활용해 해

외진출의 꿈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실제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비즈니스 단체 상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승은호 대회장은 대회를 통해 “한상을 요구하는 모국과 나고 자란 고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상의 뜻이 절묘하게 만나게 된 지점이 바로 이 대회”라며 “한민족 특유의 개척정신과 추진력으로 ‘화상(華商)’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델의 네트워크로 성공하려면 한상 뿐만아니라 정부와 국내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대회를 통해 ‘한민족 특유의 개척정신과 추진력으로 ‘화상(華商)’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델의 네트워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승은호 대회장은 “이번 대회에 내세웠던 ‘장



한상대회에 참여한 인니 상공인들

앞줄 좌측부터 조규철, 신기엽, 승은호 대회장 겸 코린도그룹 회장, 김은미 씨, 뒷줄 좌측부터 승민수, 김육찬, 이주한, 송찬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임시로 개설한 외환은행 창구에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대표장이 달러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사하는 대회'가 결과까지 이어져 매우 만족한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경제인들의 실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승 대회장은 또, "모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한상이 더욱 단결한다는 사실을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 첫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제주 한상 결의문'을 통해 고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 세계 한상과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국내 계좌를 만들어 현지 한인회와 함께 달러를 한국에 보내는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둘째 날에는 외환계좌 창구를 마련해 56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1만7000 달러를 입금하는 등 몸소 '모국사랑'을 보여줬다.

젊은 한상들의 네트워크 활용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번 대회의 성과로 풀이된다.

그 동안 대회 이후 네트워크에 교류에 대해 의문점을 표시하던 영 비즈니스리더들은 브라질 '노다지전자' 이영관 대표(46)를 비롯 일본 K-플랜그룹 고해정 사장(39), 험스 & 선 개발의 홍 선 대표(35) 등이 중심이 돼 사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한번 참석하면 다시 참석하기 쉽지 않은 젊은 한상을 위해 '영 비즈니스 포럼'에 한번이라도 참석했던 한상이라면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동창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상대회의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번 대회에는 35개국에서 모두 3340명의 한상이 참가했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국내외의 378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상담, 업종별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한 전체 상담은 2291건, 5억 6400만달러에 달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실적은 245건, 5880만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참가자 수에서 보면 35개국 총 3340명(해외 1337명 국내 2003명)이 참가, 사상 처음으로 3000여 명을 넘었다. 기업전시회에도 지난해에 비해 378개 업체가 참여해 최고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또 풍기특산물영농조합과 윈 인터네셔널 코퍼레이션이 MOU에 이은 550만 달러의 계약을 비롯 중국청도한인상공회의소와 LA한인상공회의소, 한민족IT네트워크와 제주식산업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와 버지니아주한인상공인협회 등 한상의 가치를 활용하려는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대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한상들의 성공담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관광개발 멘토링 세션, 해외취업설명회와 더불어 올해 한상대회 개최지인 제주도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한상의 산증인 정진철 회장

각별한 한인뉴스 애정으로 미화 1만불 또 기증

한인뉴스는 먼저 정진철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제5차 한상대회 대회장을 지냈던 정진철 회장은 그 해 대회장에서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한인뉴스 발행인)에게 재인니한인회 협의홍보분과위원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한인뉴스가 더욱더 발전하고 한인사회의 중요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한인뉴스에 미화 1만불을 쾌척했다. 당시 정진철 회장은 미국 LA에서 직접보낸 이메일 친서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재인니 교민들과의 간담회 때 어려운 여건인데도 꾸준히 사명감을 갖고 한인회에서 한인뉴스를 발행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교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교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해 왔었다.

한인뉴스는 정진철 회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매월 한인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송부해 왔다.

올해 승은호 회장이 대회장으로 나선 제7회 한상대회에 한상대회의 산증인인 정진철 회장은 어김없이 참여, 한상대회에 참여한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에게 다시한번 한인뉴스에 대한 각별한 그의 애정을 전해왔다.

“조(규철) 사장 이거 받아요. 내 마음이니 한인뉴스를 위해 써주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정진철 회장은 조규철 편집인에게 미화 1만불의 수표를 건넸다.

“먼 미국땅까지 매월 빠짐없이 한인뉴스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인니 교민과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상대회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조규철 편집인의 얼굴은 대회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국의 물이 좋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듣고 와서 기쁘게

우러나오는 얼굴이었다.

조규철 편집인의 말 “이번엔 한인뉴스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시더라고. 가슴이 복받쳐 얼마나 기뻐는지. 그분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더라고”

한인뉴스 편집부 일동이 다시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정진철 회장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



정진철 회장, 한상대회서 싱크탱크인 ‘한상연구소’ 설립 필요 역설

“1-3회는 대회 의미를 아는 시기였고, 4회부터는 기업 부스도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돋움했으며 5-6회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줬으며 올해는 일대일 미팅의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싱크탱크 격인 ‘한상사업단’이나 ‘한상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역회사인 로열아이맥스를 이끄는 정 회장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9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과 주 상원의 표창장과 공로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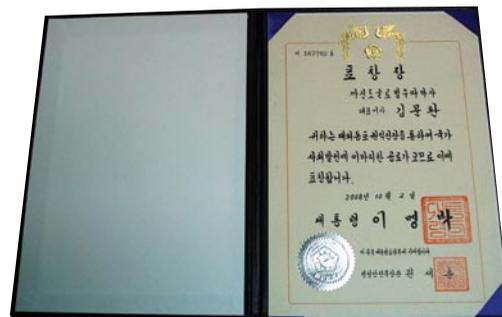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표창장을 전수하는 김호영 대사와 수상자인 김문환씨.

김문환씨, 사회발전 공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여

11월 5일 오전 10시 대사관에서 대사관 측의 김남용 공사, 오송 공사, 변철환 영사와 한인회 측의 김재유 수석부회장, 조규철 부회장, 신기엽 부회장, 김재민 사무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인뉴스’지의 고정 기고자인 김문환씨에 대한 대통령 표창장 전수식이 거행되었다.

아 그 결과를 인도네시아 공중파 매체(Metro TV)에 출연하여 홍보하는 등 일본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온 역사 바로잡기에도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2일 서울에서 거행된 ‘제2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 유공자에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게 되었다.

김문환씨는 지난 3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근속하면서 축적한 경험에 근거하여 2004년 6월부터 ‘한인뉴스’지에 ‘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연재하여 한인사회에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한국정부(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인 종군위안부 실태조사’ 제하의 연구 용역을 수입 받



김문환씨의 표창장 전수식을 함께한 김남용 공사, 신기엽 부회장, 김재유 수석부회장, 김호영 대사, 김문환씨, 조규철 부회장, 김재민 사무국장, 변철환 영사(왼쪽부터)



한인상공회의소, 무역부 장관 초청 간담회

인니 무역부의 마리 장관은 11월 4일 오전 8시 한인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보로부르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인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사항 및 각 업종별 내년도 수출전망을 경청했다. 본 간담회에는 인니측에서 마리장관을 비롯하여 무역부 각분야 고위실무담당자 10명과 소피아와 난디 인니 경총회장, 크리스 칸터 인니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고, 한인기업측에서는 송창근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코린도, 삼성, 엘지, SK, 현대 등의 대기업 대표와 봉제협의회에서 김경곤 협의회장을 비롯한 3분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대사관에서 김동일 국제관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 앞서 지난 10월 소피아 경총회장은 한, 미, 일 3국 상공회의소와 개별 회담을 갖고 현 경제위기에 대한 조언을 경청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인상공회의소는 10월 14일 경총과 조찬회담을 갖고 서면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무역부 장관 간담회는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 대통령으로부터 실물 경제 분야를 조정할 TASK FORCE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은 마리 장관이 한인상공회의소 (KOCHAM)가 경총과 무역부에 전한 건의사항들에 관하여 직접 한인 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덧붙여 각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듣기 위하여 소집된 특별 회의였다.

제출한 건의서에서 한인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불가인상 수준을 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계약직 노동자 사용 조건의 완화, 그리고 기업들이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외에 외국인 고용조건을 완화하여 장기 체류 및 복수 직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 장관은 정부에서도 경제 둔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업체들과 외국 투자업체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는 5-6% 성장 그리고 6.5%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인 불황에 대비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회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Post Shipment Financing을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 식품, 신발, 장난감 등의 제품 밀수입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 등록 (Importir Terdaftar) 그리고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의 의무화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편 합법적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과 수입 절차의 간소화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내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내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년 임금인상에 관련하여 소피아 인니 경총 회장은 17% 인상이 예상되는 족자 지역을 제외하고는 약 10%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 했다고 말했다.

뒤를 이어 참석한 한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표하였다. 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에 투자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인니 생산 기지의 활성화를 위한 새 품목 개발에 세금 인하 등의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수출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절차들의 간소화를 부탁했으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미국 수출 GSP의 연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율의 하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부탁하였다.

봉제협의회는 노동 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사업들을 대표하여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봉제업에 대한 다방면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 봉제업체는 같은 회사 내 여러 공장간 부자재 이동이 bonded zone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함께 참석한 정부 관련 인사들은 즉석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부에 한국 담당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실제적인 해결책들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삼성전자 인니 법인이 인니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삼성전자 인니 법인(법인장 이종찬)은 지난 10월 21일 기업들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신장률 및 인니 수출 기여도, R&D 투자 및 기술 현지화, 경영의 투명성, 우수납세 실적, 서비스 만족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회공헌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니 최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2008 PRIMANIYA 상”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상 받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수상식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2008 인도네시아 무역박람회 OPEN 행사장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방식으로 거행 되었으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의 수상내용은 콤팩스 등 인도네시아 주요일간지 및 경제신문에 게재되어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역할과 전체적인 국가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삼성은 아체지역 초 중등학교 및 IT센터 건립지원, 대학생들을 위한 삼성장학제도 운영,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삼성 디지털 제품 무상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인니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PRIMANIYA 상은

기업들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신장률 및 인니 수출 기여도, R&D 투자 및 기술 현지화, 인니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니 최우수 기업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이다.



이종찬 법인장을 비롯한 24명의 한국 주재원과 3000여명의 인도네시아 종업원, 80여 개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92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 인니 법인은 금년에는 매출19억불과 인도네시아 최고의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삼성전자 인니 법인은 LCD TV등 TV 모니터 제품군, DVD Player, DVD 레코더 등 HP 제품군, 홈시어터, 미니콤보 등 오디오 제품군, 컴퓨터 기록 기기인 ODD 제품군, 위성송수신기인 셋톱 박스, MP3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및 전세계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인니 문화교류축제’, 자카르타서 곳곳에서 개최

한국과 인니 양국의 대대적인 문화교류가 지난 10월 14일 밤 자카르타의 유명 쇼핑몰 스나안 시티 중앙 홀에서 화려하게 개막식을 치르고 열흘간 자카르타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대사관, 한인회, 행사를 주최, 주관한 경인일보, 이천도예협회, 인니.한국친선협회 관계자와 교민, 현지인 다수가 참석하였고 자카르타한인어린이 합창단, 다도회, 풍물패인 한바패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측에서의 많은 관심으로 인니 문화관광부 및 자카르타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특히 자카르타 주 정부는 이 기간을 ‘한국 문화 주간’으로 선포해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문화교류, 그 첫발은 한국의 도예가 맡았다.

스나안 시티에서는 도자전시회인 ‘한국도자 천년의 빛’이 10여일 간 개최되어 방문한 많은 교민과 인도네시아인에게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의 맛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한국의 최고령 원로 도예작가인 방철주(87) 선생을 비롯, 한국최고의 도예인 27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도자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현대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고 인니 도예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멋진 자리도 마련되었다.

전시장 주변에는 방문객들이 도자기를 직접 빚어 볼수 있는 워크숍 자리도 마련되어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었고 ‘한국식품전’이 동시에 개최되어 직접 시음, 시식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한국의 문화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하며 대사 부임이후 특별히 관심을 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이천도예협회의 윤태운 회장은 “이번 도자전시회는 우리 문화의 장구함과 찬란함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며 이곳에 한국의 도자 문화를 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긴 가야금 공연

10월 30일과 31일 자카르타의 우스마르 이스마일 홀에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숙명가야금연주단(대표 송혜진)의 가야금 연주와 대장금 주제곡인 '오나라'로 잘 알려진 박애리씨의 판소리, 강은일씨의 해금 파워풀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으로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다.

14명의 숙명가야금연주단은 'Let it Be', 'I want to hold your hand'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의 명곡들을 한국이미지 물씬 나는 가야금 가락으로 연주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해 스스로 울어대고 있는 듯한 두줄 현의 애절하면서도 파워풀한 해금 가락은 김성진 씨가 지휘한 다이나믹한 가야금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 공연시간 내내 관객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한 관객은 '이 협연 광경을 보고 어떠한 오케스트라 협연보다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운 한복을 입고 등장한 명창 박애리씨는 관객들의 추임세를 유도하며 '심청가'를 멋지게 소화해 냈다. 특히 현지 방송에서 수 차례 방송되었던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인 '오나라' 노랫소리를 두 눈과 귀로 직접 목격하게 된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함께 따라하기도 하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느새 상호 문화이해의 한복판에 서있었다.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숙명여대 음악이론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송혜진 대표는 공연이 끝나고 '교민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의 반응이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전했다.

감동적인 공연이 끝나고 어느새 유명인이 되어버린 공연단원들은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 둘러 쌓여 한동안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한국문화의 침범 한글교사들 동남아 한자리에 모였다.

- 제3회 동남아시아 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 자카르타에서 열려

지난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자카르타 술탄호텔에서는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한글을 가꿔나가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학교장 안영란)의 주관과 재외동포재단, 대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립국어원, 한국대사관, KOWIN 인니지회의 후원으로 열린 교사연수회에는 인도네시아 한글학교 교사를 비롯,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의 한글학교 교사 160여명이 참가하였고 김호영 대사, 정혜영 동남아 한글학교 협의회장, 한인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정혜영 협의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세계적으로 재외동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한국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의 강화는 부인할 수 없다”고 전하며 “교류의 최전선엔 한국어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호영 대사도 격려사에서 젊은 동포들을 위한 한글교육을 통해 민족교육, 한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각 타국의 종교 단체와의 마찰 등의 장벽 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가간 상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협력의 이

해 증진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상진 서울대 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류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기조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한상진 교수는 한류의 근원에 대해 “우리가 누구인가, 한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와 실험이 한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원동력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류를 건설하게 하고 한국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류가치를 키워야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어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글’과 한류를 키워내기 위한 ‘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주장했다.

또한 그는 광복의 의미를 김구 선생과의 연관성에서 밝히고 ‘광복은 곧 문화가 융성하는 나라이며 평화가 태어나고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문화나라의 침범으로서 국가품위를 높이는 최전선에 한글교육자가 있다고 역설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금번 교사연수는 최영환(경인교육대 교수)의 ‘효과적인 한글 교수법’, 정무성 교수의 ‘모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정호성 국립국어원 팀장의 ‘한국어 어문 규정’과 ‘한국어 교원관리 정책’, 서울문화재단의 ‘창의적인 예술 교육’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한류의 종합적 이해’로 기조연설하고 있는 한상진 교수



이영희 노동부장관 방문 동포간담회 개최

10월 14일부터는 발리에서 열리는 ASEM 노동장관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날인 13일 자카르타에 도착 한인기업인들과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영희 장관은 “인니 방문후 인니 근로자들의 한국취업열의에 놀랐고 교민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잘 해내고 있는데 다시한번 놀랐다”고 전하고 교민기업인들이 자원외교 등 인니와 중요파트너가 되어 경제협력의 선도에 서주길 바랐다.

송창근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영희 장관에게 대정부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송 수석부회장은 1.내년 최저임금 인상건, 2.비정규직 사원 고용조건 완화, 3.교민의 인니근로허가 기준 완화, 4.선진국형 노동법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환경 등에 관한 교민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교민대표, 국회의원 5인 초청 동포간담회 열어

문학진 국회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5인(문학진,이상득,박주선,이춘식,홍정욱)이 국정감사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10월 15일 코린도그룹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동포간담회를 갖고 인니 한인사회의 다양한 요청사항들을 전달했다.

문학진 의원과 승은호 한인회장이 각 측의 인사말이 있고 난 후 조규철 부회장은 부족한 한인회 예산에 대한 정부측의 지원의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전달하고 이진수 부회장은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 교민사회의 흐름에 맞게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지원책 강구를, 신기업 부회장은 주인니한국대사관 본관 이전에 따른 지금의 본관을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주인니한국대사관 본관 건물의 한인사회 지원에 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코린도, 우리투자증권과 인니 금융시장 본격 진출

코린도 그룹과 우리투자증권이 함께 본격적인 인니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다. 우리투자증권(대표 박종수)은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그룹 계열 증권사 CSI의 지분 9000만주(지분율 60%) 인수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코린도그룹이 지난 40여년 간 쌓은 노하우를 현지 IB사업 추진에 활용, 안정성 있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게 된다.

CSI 회사 명칭도 'PT 우리 코린도 시큐리티 인도네시아'로 변경된다. 주로 투자은행(IB)과 위탁매매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IB부문에서는 현지 정부채권 및 회사채 인수,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기업 M&A 자문, 자금 컨설팅, 자원관련 사업 투자주선 및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한다. 위탁매매 부문은 현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 중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제1회 무궁화 배 야구대회 개최

재인니 한인야구협회는 지난 7월부터 약3개월간 재인니 한인야구협회 주최, 무궁화유통 후원 시합인 제1회 무궁화 배 야구대회가 열려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무궁화 팬텀스, 아랑 드림스, 땅그랑 드레곤스, 휘닉스, 총4개팀(약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3개월간 각 후원사의 후원으로 리그전을 하고 있다. 제1회 무궁화 배 야구대회의 우승팀은 무궁화 팬텀스가 우승을 하였으며 준우승은 아랑 드림스팀이 차지 하였다. 이날 후원사인 무궁화유통 김우재 회장(무궁화 팬텀스 단장)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팀들이 결성이 되어 인도네시아 교민들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활성화를 시켜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화합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하였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제1회 무궁화 배 리그전 MVP, 감독상 등을 수상 하였다. 수상후 4개팀들은 바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무궁화 배 ALLSTAR 게임을 하였으며 다음 리그전인 아랑배 대회를 준비하였다

현재 20세의 초반부터 60세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의 교

자카르타의 위성도시 땅그랑(Tangerang)의 한국인들 사이에 새로운 장년 문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땅그랑 지역의 일부 현역 기업인들이 다져가는 서예동호회가 그것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기업인들이 우리의 전통예술이자 수양의 도구였던 필묵을 통해 타국생활의 여가를 잘 활용해보자는 것이 이 동호회의 시작이었다. 기업인 윤초 김영주사장(63)이 공장 내에 운치 있게 지어진 정자를 수련장소로 제공하고,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인재 손인식선생을 초청하면서 땅그랑 지역의 한국인 장년들에게 필묵의 향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육적 효과도 클 것인데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여가가 많아 질 은퇴 후를 스스로 대비한다는 의미가 크지요. 갈수록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는 빨라지고 있잖아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금의 인도네시아 한국교민사회에서 장년 남성의 문화생활은 나름대로 차츰 그 범위를 넓혀져 가고 있다. 한동안 스포츠로서 골프가 주종이던 것에서 벗어나 스포츠 활동으로는 축구, 야구, 테니스, 마라톤 등으로 늘어났고, 음악 부문으로는 색소폰, 재즈, 사물놀이 등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순수 전통문

땅그랑에 뿌리내리는 품격의 장년 문화



평소 회사 대표라는 직함보다는 아호 <윤초>로 불리기를 즐겨하는 김영주씨는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거기에 걸맞고 내면을 수양할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붓을 잡아보니 시작을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아직 초보자로서 필묵을 잘 운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면 정신이 맑아져요.”라고 껄껄 웃은 그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에선 교

화 동호회로서 필묵동호회가 더해진 셈인데, 이는 이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3번의 전시회와, 국내에서 치러지는 공모전에 다수 입상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自筆墨緣(자카르타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태이다.

한편 땅그랑 지역에서는 주부들의 필묵동호회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야구를 좋아하는 성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6시까지 스나얀에 있는 야구장으로 오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야구협회 사무국장인 서준형 사무국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0813-1843-6062)



아체에 이동식 크레인 지원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전담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29일, 반다아체 ‘아체-니아스 재건 복구청(BRR)’에서 아체 및 니아스섬 3개 항구의 화물적재 및 하역능력 개선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 전달식을 Kuntoro Mangkusubroto 재건복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아체 쓰나미 재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아체 및 니아스섬의 3개 항구의 화물적재하역능력 향상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200만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전달된 크레인은 아체주 말라하야티 항구 및 록스마웨 항구에 지원되었으며, 내년초 니아스섬 구농시폴리 항구에 세번째 크레인이 전달될 예정이다.

아체지역은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 발생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도움으로 재건복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재건 복구를 위하여 긴급구호 및 물자지원, 망그로브숲 복원, 친선병원 및 시범학교 건립 등 총 1,720만불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 하였으며, 내년초 니아스섬에 전달되는 이동식 크레인 지원을 끝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지원활동은 실질적으로 종료되게 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Kuntoro 청장은 그간 KOICA를 통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아체 지역의 재건복구를 지원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 중에 KOICA의 지원활동 및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들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금번 지원된 이동식 크레인은 향후 아체 및 니아스섬의 재건복구 활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아체 및 니아스섬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차 워크숍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28(화) 공공사업부에서,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첫 번째 워크숍을 공공사업부 및 수마트라 10개주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주)삼보기술단, (주)유신코퍼레이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수마트라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2007년 개최되었던 한-인니 경제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KOTRA, 스마랑 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세미나 개최



- 스마랑 지역 우리기업 30개사 참석 -

KOTRA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스마랑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월25일 스마랑 그랜드칸디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마랑지역의 우리기업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권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장이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이어서 이지한스의 한태기 사장이 조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에 대한 강연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재훈)의 적극적 지원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스마랑지역 업체에게도 인도네시아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KOTRA는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의 무역진흥 업무뿐 아니라, 투자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노무, 통관 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수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며,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에 진출에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지난해 12월 및 올 6월에 수라바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 스마랑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KOTRA 김병권 센터장은 “KOTRA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인니정부기관 접촉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업체들도 KOT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수되어 향후 2년간의 연구조사를 거쳐 2010년 7월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비록 도로망 마스터플랜이기는 하나, 철도와 내륙수운을 포함하여 수마트라의 지역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체계에 대한 구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수마트라 고속도로망 개발계획의 수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OICA와 공공사업부는 동 사업이 수행되는 2년 동안 모두 5차래의 관련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며, 워크샵을 통해 현실여건이 잘 반영된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도출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수마트라는 석탄과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4,800만 명에 달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철도를 비롯한 교통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경제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금번 마스터플랜은 기존 교통수단, 지역경제, 환경, 지역개발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향후 20년간의 도로망 구축에 대한 실행계획을 인니 정부측에 제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수마트라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훈 재외동포재단 이사 한인회 방문

강남훈 이사는 한인회 사무국, 한인뉴스 편집실, 최근 개관된 ‘문화회관’ 등을 둘러보고 한국에서 들은 바와 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인회 신기업 부회장은 “재정적 지원으로 교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강남훈 이사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 형편으로 인해 세계 각지 한인회의 요구액에 현저히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는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를 보고 ‘교민사회의 화합과 단결의 기능’을 담고 있는 한인뉴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타 교민 언론지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8일 외교통상부 산하 해외동포 직접 지원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강남훈 이사가 한인회를 방문하고 한인회의 운영, 재정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제2차 한-인니 에너지 포럼 자카르타서 개최

한국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는 동남아 최대의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양국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제2차 한-인니 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측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청의 공동주관하에 지경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윤호 장관과 푸르노모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 장관,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김종신 한수원 사장, 서문규 석유공사 부사장, 이병호 가스공사 부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그 동안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교역과 개발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향후 원자력 발전을 포함, 신재생에너지, 청정화석에너지 등 한차원 높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및 기술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 회식 이후 이어진 전체 세션에서 한국 수력원자력은 ‘한국 원전산업의 현황과 양국 원자력 협력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추진중인 원전건설사업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의 도입 등 양국간의 공동투자, 공동건설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양국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을 설명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의 중요성과 수보의 지원사례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석유, 가스, 석탄, 광물, 전력, 신재생 등 3개 세션에 걸쳐 양국 기업간 진행중인 협력사업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포럼에 앞서 이장관은 푸르노모 에너지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LNG(액화천연가스)도입 확대, 원전건설 협력, 보조네가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및 자원 공동개발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총 4개 세션으로 나눠서 이루어진 이번 에너지 포럼에는 첫번째 세션에는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과 현재 상황, 두번째 세션, 석유와 가스, 세번째 세션, 석탄과 자원, 네번째 세션, 전기와 신 에너지, 그리고 사회시설으로 구성되었다.

교민기업으로써는 페트라스가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 페트라스는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석을 하여 세션3의 석탄과 자원부분에서 “남부수마트라의 저열량 석탄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인뉴스 후원회

한인뉴스는 든든한 후원자인 (한인뉴스 후원회)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왼쪽부터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 조유행 후원회 회장, 주창규 후원회 총무

매월 하순 경엔 어김없이 한인뉴스 편집회의를 갖고 이 번호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다음호의 편집방향을 잡는다. 방송매체나 신문, 잡지 등 언론사에서 편집의 파워가 가장 세며 그 역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편집(디자인이 아니다)은 각 매체의 색깔과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내며 시청자와 독자의 의견과 비판이라는 여론과 바로 맞닥뜨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야 하며 나름 용기와 주관이 필요하다.

한인뉴스는 편집회의를 통해 인터뷰 할 대상을 논의한다. 이 번호에는 올 봄 발족해 한인뉴스와의 동거(?)를 선언한 <한인뉴스 후원회>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너무 안으로만 싸고 도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 대상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은(특히 남자들) 아주 발가벗은 나체보다 보일 듯 말 듯한 여인에게서 더 아름다움과 섹시함을 느낀다고 한다.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한인뉴스가 <한인뉴스 후원회>를 인터뷰 하게 된 동기가 인터뷰 기사에 살포시 녹아 들어가 있어 이 번호를 위한 편집진의 편집방향을 잃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부는 낙관은 금물. 숨바꼭질 하듯 보물찾기 하듯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길 바라며 서투르지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쯤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숙고해보길 바란다.

Q 한인뉴스 후원회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4월 29일 한인뉴스 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발족하게 된 데에는 한인뉴스의 편집인으로 계시는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님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대한 조규철 편집인의 애정이 너무 컸고 또한 한인뉴스가 어려운 여건 상황하에서 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한인뉴스를 너무 쉽게 받아보고 있기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11명인 저희 회원들은 평상시 한인뉴스의 애독자였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후원회 결성을 통해 작은 도움이나마 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Q 후원회에서 한인뉴스 후원 이외에 또 다른 의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후원회원들이 모이다 보니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무척 따뜻합니다. 저희 회원들 구성원의 업종도 제각각이고 연령대도 차이가 있지만 회원들 사이의 정을 두텁게 하는 데는 일치의 양보도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의 친목도모를 위해 연간 회비도 모으고 골프모임을 갖거나 정기적인 식사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인뉴스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교민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능력껏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인뉴스 후원회가 발족되었고 한인뉴스 가족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Q 후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회원 자격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죠. 회원들의 친목모임 열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회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후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 교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모임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업무상 후원회의 취지에 동의하되 정기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과 준회원이 라고 편의상 분리하게 됐습니다.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은 월 50만 루피아의 한인뉴스 후원회비를 내셔야 되며 이렇게 모인 후원회비는 매달 한인뉴스 계좌로 송금 됩니다.

정회원은 모든 회원 중 3분 1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후원회의 친목도모를 위해 연간 150만 루피아의 회비를 따로 내게 됩니다. 또한 정회원은 매 홀수 달 세 번째 주의 한인뉴스 후원회 정기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후원회의 일을 자꾸 알려나가면서 마음 맞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독자로서 보시는 현재 한인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과거 한인뉴스와 현재 한인뉴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인뉴스는 한인회와 대사관의 동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정리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

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발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매달 빼먹지 않고 발행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한인뉴스가 내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중됨이 없이 우리 사회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덧붙여 시각적으로 상업성 잡지 못지 않은 화려함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니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넓히는데 독자로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사회일수록 더욱 지켜내야 할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Q 공익성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 내부의 질서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야 하는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회일수록 잡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로는 큰 사회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다 보니 자생적으로 정화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 스스로 정화시켜내는 힘이 있지만 이곳 같은 작은 교민사회에서는 서로 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많이 얽여 있다 보니 그런 장치가 생겨날 틈이 없는 거죠. 저희가 보기엔 한인뉴스는 개인적인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기사의 내용과 편집으로써 우리 공동의 목적을 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한인 이민역사 초창기에 한 기업인이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라이파이한의 비극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익성은 우리 한인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공익성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 타 사회와의 공동 이익의 추구가 뒤따라 오겠죠.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인니 전체사회에서

보면 깨알같이 작은 사회입니다. 작지만 대내외적으로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 바탕으로 자율성이 존중되었지만 대내적인 대의를 위한 일정 정도의 제약과 봉사, 희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한인뉴스에 상업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익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선 상업적인 요소도 반대급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인뉴스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한인뉴스는 교민사회를 대변하는 한인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 성격상 교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잡지로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인뉴스가 가져야 하는 색깔이고 그걸 공익성으로 불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 조 편집인은 한인뉴스의 중요성을 전하며 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Q 내부에 있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을 바로 못 볼 때도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대해 전해주세요.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어 저희들 또한 기쁩니다. 호기심을 한인뉴스의 기사 수를 세어 본적이 있는데 약 40여 개 이상의 기사가 짜집기 식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용한 내용을 채워져 있는 것도 보았구요.

교민 여성분들은 특히 강효정 술환의원 원장선생님의 글인 열대과일에 관한 기사와 사공경선생님이 꾸리고 있는 인니문화연구반이 매달 직접 체험하여 생생함을 전하고 있는 글들을 상당히 좋아하고들 들었습니다. 열대과일에 관한 글은 지금껏 과일로만 생각하고 막연히 먹었는데 자세히 설명

되어 있는 글을 읽는 재미와 함께 특히 한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 좋다고들 하시네요. 한편 교민 대다수가 그렇듯이 이 나라의 역사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김문환씨의 기고 <시사포커스>가 남성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글 중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연재되고 있는 9.30사태에 관한 글을 통해 이 나라 현대사의 다이내믹한 맛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10.26사태와 비슷하기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구요.

결국 한인뉴스가 다양하게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달의 한인사회를 간단명료하게 다루고 있는 한인사회 소식란은 그 자체로서 한인사회가 후세에 남길 역사적인 기록이 됩니다. 인니문화연구반의 글을 통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주변사람들을 보게 되고 인사노무칼럼이나 법률상식 또한 대사관의 협조로 기고되고 있는 경제리포트 등은 정보의 불모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고급의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사실 잡지의 성격상 테마를 자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한인뉴스를 보면 솔림현상을 견제하면서도 점점 문화 쪽에 기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화는 모든 교민들의 관심거리고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민들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는 봉제, 신발, 전자, IT 등 우리 한인업체들에 대한 탐방기사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등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교민사회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도움이 되어 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홍보성이 되고 안되고 할 수 있으니 그 점에 관해서는 편집진의 방향이 중요하겠지요.

Q '별로 재미는 없다' 라는 한인뉴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한정된 지면에 가십거리를 넣는다고 해서 재미있어 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밌는 잡지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민사회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 하는 매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유용한 매개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가져와 지면을 통해 소개하지만 그건 다시 바뀐 보면 인터넷속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인뉴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얼마 되지 않는 매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치



인터뷰 중인 조윤행 한인뉴스 후원회 회장

를 재미라는 카테고리안에 가뒀 평가한다는 것은 금물이지 않을까요?

한인뉴스의 뒤를 이어 자기만의 색채를 가지고 좀 더 진일보한 잡지 등의 매체가 하나 둘 더 나타나 우리 교민사회를 더욱 살 지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체는 교민 사회 스스로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아끼고 키워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Q 지나친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 직접 취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우리 교민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각자시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후원회에서도 몇 가지 방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우리 커뮤니티를 돌아보는 기획이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고 방법적으로는 타국한인사회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들과 인도네시아의 타 외국인 사회에 대한 분반을 만한 소재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타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발전을 돕는 거울의 기능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끼리 모여 조사도 하고 의견을 나누며 객관적인 기사를 완성하게 된다면 우리 모임을 더욱 뜻 깊게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교민 사회 어느 곳도 모두 한인뉴스의 취재 대상이 됩니다. 한인회와 대사관의 동정도 좋지만 교민사회 구석 구석에 드러나지 않는 훈훈한 미담 또한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민분들 중에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나 개인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현지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배포하여 양국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호엔 족자 한인사회를 특집기사로 다뤘습니다. 족자 교민들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척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한인뉴스 관계자에 많은 고마움을 표시했것 같습니다. 멀리 있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한인사회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교민들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하는 어글리 코리안의 모습들도 간혹 보입니다. 외국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되는 점들을 꼬집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한인뉴스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정성스럽게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 기고자분들과 광고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사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뜻 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은 한인뉴스는 개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전체 교민 사회의 공익을 위해 발행되는 잡지입니다. 공익성이 우선이다 보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잡지로서의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인뉴스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전처럼 십시일반 후원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인뉴스 후원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해피센터가 오픈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교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만중뿌리옥의 노숙자들에 무료로 밥퍼사역을 해온 최원금 선교사는 끝라빠가당에 해피센터를 오픈 지속적으로 밥퍼사역을 수행하게 됐다. 지난 11월 3일 거행된 오픈식에는 해피센터관계자, 각 교회 목사,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 변철환 영사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최원금 선교사는 “지금까지 밥퍼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밥퍼사역은 인도네시아의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인데, 한국교민의 정성이 점점 인니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피센터까지 마련하여 하드에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라며 해피센터의 의미를 전했다. 그간 밥퍼사역은 독지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노동력과 음식을 모아 매회 150여명의 빈민들을 도와왔다. 하지만 해피센터 오픈을 통해 마련된 밥퍼주방센터를 통해 매회 300여명의 빈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해피센터는 1층 밥퍼주방센터외에 2층 한국문화원, 3층 강의실, 4층 어린이 개발사역실 등으로 구성되어 밥퍼사역 외에 한-인니 문화의 가교역할 또한 겸하게 됐다.

해피센터에 관심있으세요?

1.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밥퍼 사역을 하기 위해 애정있는 교민들께서 한달에 한구좌(10만 루피아)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한달에 한번 화,목,금요일 중 하루를 택해 밥퍼 자원봉사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 3주전에 말씀하여 주셔서 자원봉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 : 이현주 선교사 (0812-8122-814)
3.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6시 무료진료가 실시됩니다. 신농씨 한방병원 김석현 원장이 직접 진료합니다. 교민,인도네시아인 누구든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 (최원금 해피센터 섬김이)

전화번호 : 0811-809-515 / 이메일 : wgchoi60@hanmail.net

주소: Plaza Pasifik Blok A1 No.20 Kelapa Gading Permai(무궁화슈퍼 근처)





소화기를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부아 블레와

호박의 소박함을 그대로 담아 놓았습니다. 겉 표면을 이리 저리 만져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색깔도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마구 섞여 정갈한 차림새가 아닙니다. 하나씩 흠이 패여 있는 모습도 한국의 호박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네시아 호박입니다.'라고 알려주어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호박과 확연히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은은히 퍼지는 향입니다. 냄새를 풍기는 듯해서 가까이 코를 대보면 멜론에서 나는 약한 단 맛이 후각을 파고 듭니다. 분명 호박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과일이거나 야채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호박을 닮고, 맛과 향은 멜론을 닮은 이 과일……부아 블레와입니다.

부아 블레와의 학명은 Cucumis melo입니다. 부아 블레와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떡잎식물강(Dicotyledoneae), 함판화아강(Metachlamydeae), 박과(Cucurbitaceae)입니다. 박과의 식물들은 우리네 삶과 참으로 친숙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오랜 전래동화인 흥부전에 나오는 지붕 위에 열린 박에서부터 수박, 참외, 멜론 등의 과일이 있습니다. 또한 박과 식물은 한약재로도 널리 사용하고 있어 이뇨작용을 돕고 진해작용이 있는 동과자(冬瓜子), 간염에 걸렸을 때 유용하며 토제로 쓰이는 과체(瓜蒂), 이뇨제로 쓰고 급성과 만성 신장염에 쓰는

수과(水瓜), 치질인 경우에 유용하며 거담약으로 쓰는 목별자(木鼈子)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아 블레와는 아프리카를 그 원산지라고 있습니다. 이후 인도, 중국을 거쳐 열대 및 아열대 지방으로 퍼져 나갔으며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과일의 기원지가 아프리카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관계로 보통 'semangka Beland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아 블레와의 겉 표면은 울퉁불퉁하며 손으로 만지면서 살짝 눌러보면 약간은 폭신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껍질의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섞여 있으며, 가끔은 검은 점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황색이 많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흠이 있는 부분으로 하나씩 쪽을 내어 먹어 보면, 자르기 전에 풍기던 향은 정말 그냥 코를 호강시켜 준 향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단 맛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이 나니, 행여 미각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어떤 맛도 크게 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육질은 멜론처럼 수분량이 많아 보이며 약간 노란빛을 띵니다. 씨는 호박씨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부아 블레와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性)은 한(寒)하며, 미(味)는 미감(微甘)하며,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이 됩니다. 한약의 기본이론을 정리해 놓은 본초학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부아 블레와에 대한 고찰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보본초(開寶本草)>에 의하면 '더위로 인해 생긴 열을 풀어주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고 하였으며, <식료본초(食療本草)>에서는 '갈증을 없애거나 삭혀 주며, 기(氣)를 도우며 번열(煩熱)을 제거하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며 삼초(三焦)에 갇혀 있는 기(氣)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아 블레와의 얇은 가지들은 코 속이 두터워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뿌리는 간질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며, 잎은 탈모를 예방해 주고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씨를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사용하면 맺힌 것을 풀어주고 어혈을 제거하며, 과일의 껍질은 치통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으며, 이 과일의 꽃은 가슴의 통증을 없애주고 기침이 멎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기병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복용을 금지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만약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황달병이 생겨 몸이 지나치게 허약해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음부(陰部)가 습하게 되며 가려워서 부스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아 블레와를 라마단 과일(Ramadhan fruit)의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아 띠문수리(buah timun suri)와 함께 부카 뿌아사(buka puasa)를 위해 준비해 놓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내내 굶다가 이제 막 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위장관을 잘 달래줄 수 있는 과일로 부아 블레와를 선택합니다. 주스기에 넣고 잘 갈아서 시럽을 섞어 한 잔 쪽 들이키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합니다.

부아 블레와에는 인체 구성 요소 중에 기본이 되는 수분의 양이 87.3%가 들어 있으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인이 각각 14mg과 12mg, 새로운 혈액을 생산하도록 돕는 철분이 0.3mg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100 IU., 비타민 B1은 0.05mg, 비타민 B2는 0.05mg, 비

타민 C는 10~200mg이 들어 있어서 부카 뿌아사를 위해 먹기에는 참으로 영양도 듬뿍 담긴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부아 블레와는 뿌아사를 하고 있는 한 달 동안은 길거리 과일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아사 기간이 아닐 때에는 과일을 구입하려면 재래 시장을 찾아 가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부아 블레와를 멜론, 꿀랑갈링, 끌라빠 무다, 알포캇등과 함께 섞어서 에스 부아(es buah)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주 마십니다. 라마단이 되면 우리 곁에 찾아오는 과일……부아 블레와 내년 뿌아사 때는 주황빛이 많이 나는 부아 블레와를 주스로 갈아 시럽을 섞어서, 한 번 시원하게 들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실 것입니다.

술한의원 원장 강효정

kang.4333@gmail.com/021-7278-7410





'9.30사태'의 전말(顛末) 제3부 一日天下

글 : 김 문 환

10월 1일 새벽 2시, 대통령 경호실 제1대대장 운몽 중령의 직속 부하인 둘 아립(Dul Arief) 중위가 지휘하는 60여 명의 경호실 대원과 기타 지원부대 병력으로 총원된 7개조의 납치특공대는 뽀뽀 그데(Pondok Gede) 루방 부아야(Lubang Buaya) 지역에 집결하여 출동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3시 반에 막사를 떠나 각각 지정 받은 납치 대상자들의 자택에 도착하여 4시 이전에는 사택 주변에 대한 포위작전을 모두 완료한다. 첫 희생자는 육군참모차장 하르요노(M.T. Haryono) 소장이었다.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거칠게 반항하던 장군은 현장에서 사살되어 트럭에 실려졌다. 같은 시각에 나수띠온(A.H.Nasution) 대장에 대한 납치작전이 시작되었다. 나수띠온 장군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담을 넘어 옆집인 이라크 대사관 정원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으나 그와 모습이 비슷한 전속부관인 펜테안(Pierre Tendean) 중위가 대신 납치되었고 동시에 5세밖에 안된 장군의 양녀인 이르마(Ade Irma Suryani)가 총상을 입어 5일 후인 10월 6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4시 30분엔 육군참모총장 야니(Achmad Yani) 중장도 무례한 행동을 보인 이들을 꾸짖다 피살되어 끌려 가자 가정부는 야니의 부관인 수바르디(Subardi) 소령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수바르디는 인근에 있는 빠르만 장군 관사로 달려갔으나 그도 이미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자카르타 지역사령관인 우마르 위라하디꾸스마(Umar Wirahadikusuma) 소장 관사를 찾아갔다. 우마르 장군은 자카르타 주요도로를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실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전사(RPKAD)의 도움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바르디 소령을 특전사령관인 사르위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 대령의 관사로 보냈다. 이때가 새벽 5시 반이었다. 야니 참모총장이 납치

된 직후인 4시 50분경에 판자이판(Pandjaitan) 준장도 반항하다 현장에서 피살되었고 5시경엔 빠르만(S. Parman) 소장, 수쁘랍또(Soeprapto) 소장, 수또요(Sutojo) 준장이 큰 저항 없이 루방 부아야로 납치되었다. 8명의 납치 대상자 중 정보참모로서 나수띠온 장군의 측근이자 미국통인 수겐드로(Soekendro) 준장은 마침 베이징에 출장 중이라 마지막 순간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5시 50분 특공대장인 둘 아립 중위가 민병대장인 수요노(Suyono) 공군 소령을 경유하여 아이딧에게 '3명 사망, 3명 생존, 1명 도주'라는 전과와 함께 납치작전을 종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나수띠온 장군에 대한 납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접한 아이딧과 혁명군 지휘부는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최고위직 우익장성인 나수띠온이 생존하여 반격을 가할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일단 다음 단계의 작전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수띠온 장군의 생존설에 자극 받은 라뎃(Latief) 대령이 샴(Siam)의 지시를 받아 루방 부아야에 납치되어 있는 장성들 중 생존자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할렘 경비대장이며 민병대를 지휘하고 있는 수요노 소령에게 하달한다.

한편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가 다 되어 대통령궁을 떠나 호텔 인도네시아(Hotel Indonesia)에서 행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데위(Dewi) 부인을 픽업하여 숙소인 위스마 야소(Wisma Yaso)로 귀가하였으며 새벽 5시에 부관인 수나르요(Sunarjo) 헌병 대령으로부터 이날 정변이 일어났음을 보고받자마자 아침 7시에 수빠르조 준장과 대통령궁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는 각본대로 6시경 대통령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앞에서 에스코트하던 개인 보좌관 망일(Mangil) 경찰 대령이 나수띠온 장군 자택 부근을 지

날 때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동료 경찰로부터 나수띠 온 장군이 탈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통령은 크게 당황하며 차를 돌려 시내를 잠시 배회하게 된다. 그 사이 그로골(Grogol) 지역의 넷째 부인 하리아띠(Haryati)의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차장 사엘란(Saelan) 대령과 망일 대령이 무선으로 통화하면서 대통령을 하리아띠 부인의 자택으로 모시도록 합의를 본다. 같은 시각 제2부수상 레이메나(Leimena)가 나수띠 온 장군이 지금 부상을 입은 채 자신의 집에 은신해 있다고 보고하자 수카르노는 알리 에브람(Ali Ebram) 중령을 시켜 나수띠 온 장군을 색출하여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라뎡 대령도 같은 목적으로 나수띠 온 장군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아침 내내 행방이 묘연했던 대통령이 오전 9시 경 할림 혁명군 본부지역에 불쑥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아이덜과 혁명군 수뇌부는 일단 안도하면서 대통령이 자신들을 불러 이전에 약속한 대로 조각을 단행하고 중국의 휴양지로 은퇴하겠다는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10월 1일 아침 7시 20분, 국영 라디오방송(RRI:Radio Republik Indonesia)은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전혀 거리가 먼 특이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1965년 9월 30일부터 수도 자카르타에서 진보적인 육군그룹이 중심이 된 혁명군에 의해 반역적인 '장군 위원회(Dewan Jendral)'를 겨냥한 군사작전이 전개되었으며 이 작전의 지휘자는 대통령 경호대대장인 운똥(Untung) 중령이다. 여러 명의 관련 장성들이 이미 체포되었으며 방송국을 포함한 국가 주요 기관들은 혁명군에 의해 장악되고 있고 수카르노 대통령의 신변은 안전하다. 지난 8월초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됨을 계기로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장군위원회'는 10월 5일 국군의 날 행사를 빙자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여 정권을 찬탈할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운똥 중령이 지휘하는 이 작전은 이러한 국가전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곧 '혁명위원회(Dewan Revolusi)'를 지방면 단위까지 결성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권력의 야욕에 광분하는 '장군위원회'와 그 하수인들을 발본색원하여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혁명위원회' 위원명단과 포고령이 곧 발표될 것이다.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국민들은 모든 일상을 놓고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그 후속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4시간 후인 오전 11시 정각, '혁명위원회' 지도부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포고문 제1호가 방송되었다.

- 혁명위원회 최고회의 위원장; 육군 중령 운똥(Untung),
 부위원장; 육군 준장 수빠르조(Supardjo),
 부위원장; 공군 중령 헤루(Heru),
 부위원장; 해군 대령 수나르디(Sunardi),
 부위원장; 경찰 대령 안와스(Anwas)

거사가 시작되면 대통령을 할림지역 안가로 모시는 임무를 책임지고 있던 수빠르조 준장은 아침 내내 행방이 묘연하던 대통령이 공군 작전상황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대통령을 모셔오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에게 혼계만 듣고 오후 2시경에 당 본부로 돌아온 수빠르조는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국가원수직을 고수하고 있으며 거사를 당장 중지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전한다. 이 보고를 접한 운똥 중령은 우익장성들을 제거하도록 불과 며칠 전에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든 이제 와서 이를 중단하라고 하느냐며 흥분하였다. 운똥은 심지어 배신자로 돌아선 수빠르조를 연금하고 당장 대통령을 제거하지는 제안까지 하였으나 할림지역의 군사 통솔권을 쥐고 있는 오마르 다니 공군참모총장의 제동으로 일단 대통령 제거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오마르 다니 장군의 견제로 아이덜은 할 수 없이 더 이상 대통령의 역할을

10월 1일 새벽 수하르도 장군은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보고받자마자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차사령부로 출근하였다. 사진 위로부터 당시의 수카르노 대통령 전용차량인 미국 GM사 시보레이(Chevrolet)와 수하르도 소장의 전용 차량인 도요다 랜드 크루저(Land Cruiser) 짐차, 그리고 장성들을 납치하는데 사용된 닷지(Dodge) 트럭. 이 차량들은 현재 뽀독 그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10월 1일 새벽에 납치되어 루방 부야아 지역 우물에 함께 매장된 6명의 육군수뇌부와 한 명의 초급 장교. 사진 상부 좌측부터 야니(Achmad Yani) 중장, 수쁘랍또(Soeprapto) 소장, 하르요노(M.T.Haryono) 소장, 빠르만(S.Parman) 소장, 뽀자이딴(Pandjaitan) 준장, 수또요(Sutojo) 준장, 뽀덴데안(Pierre Tendean) 중위.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굳히게 된다.

오전 7시 20분과 11시에 방송된 혁명위원회 명의를 포고령에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오마르 다니 장군 및 수빠르조 장군과 여러 차례 개인 밀담을 나누면서 수마프라 메단(Medan)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1부수상 수반드리오를 제외한 제2부수상 레이메나, 제3부수상 하에를 살레와 친 수까르노 성향의 각군 사령관들을 점심식사에 초대하도록 지시하면서 11시 30분 자신의 안가로 지정되어 있는 수산또(Susanto) 장군의 사택으로 거처를 옮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오찬을 끝내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시각인 오후 2시 혁명위원회 포고 제2호가 전파를 타고 있었다. 내각을 해산하고 국가 최고통치기구로서 ‘혁명위원회(Dewan Revolusi)’가 발족하였으며 운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의 최고위원과 오마르 다니, 수반드리오 등 45명의 위원명단이 발표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수까르노의 이름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었다. 아울러 현역 군인의 계급 중 대령급 이상은 모두 중령으로 강등하고 중령 이하의 계급은 모두 일계급씩 특진한다는 전무후무한 발표문을 내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포고령이 줄지어 나오고 대통령은 아이덜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송하는 사이 강 건너 수하르또 장군 진영은 진압작전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새벽 4시경 나수피온 장군이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담을 넘어 피신한 직후 나수피온 부인은 총상을 입은 딸을 안고 부근에 있는 자카르타 지역사령관 우마르 소장의 관사로 뛰어 들었다. 우마르 장군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사태 파악에 동분서주하며 새벽 5시 반 전략사령부로 향했다. 한편 지난 밤 병원에서 혁명군 측 라뽀 대령의 방문을 받고 자택으로 급히 돌아왔던 수하르또 소장은 어디론가 나갔다 귀가하여 잠깐 눈을 붙인 후에 전투복으로 갈아 입고 새벽 6시경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전략사령부에 도착한다. 7시 20분에 혁명군 명의로 ‘9.30운동’이 시작됐다는 수라디

(Suradi) 대위의 육성이 첫 방송을 타고 있었다. 야니 장군의 부관인 수바르디 소령과 나수피온 장군 부인이 자택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정변이 일어났음을 인지하고 급히 달려온 우마르 장군과 와호노(Wahono) 대령, 깨말 이드리스(Kemal Idris) 준장 등 전략사령부 참모들 앞에서 수하르또는 혁명군이 표방한 ‘9.30운동’을 운똥 중령이 주동한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납치된 대통령을 조속히 구출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었다. 8시 30분 경 납치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모처에 은신 중인 나수피온 국방부장관은 수하르또와 통화를 하면서 쿠데타 주모자인 운똥을 비롯한 그 일당을 타도하고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군 지휘서열에 따라 전략사령관인 수하르또 소장을 공식적인 육군참모총장 대행에 임명하기로 합의하였다. 8시 30분 수하르또는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수도권 주변 병력 배치 상황을 점검하였다. 수하르또는 마침 보고 차 전략사령부로 달려온 야니 총장의 보좌관인 헤르만 수디로(Herman Sudiro) 대령을 전략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잠갑차 중 한 대에 탑승시켜 할림에서 멀지 않은 씨잔똥(Cijanting)에 주둔하고 있는 특전사(RPKAD) 사령관 사르위 에디 위보워(Sarwo Edhi Wibowo) 대령에게 특파한다. 이때만 해도 군 수뇌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던 사르위 에디 대령은 고향 선배이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멘토(Mentor)였던 야니 총장과 육군 수뇌부가 납치되었다는 자초지종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채 즉각적으로 수하르또 진영에 가담하기로 결심한다. 헤르만 대령이 사르위 에디 대령에 대한 설득을 마치고 자리를 뜨자마자 이번에는 혁명군 측에서 보낸 사부르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발 늦게 사르위 에디 대령의 방에 들어 선다. 특전사가 운똥 중령의 혁명군 편에서 달라는 사부르 실장의 제의를 사르위 대령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저녁부터 사르위 에디 대령 휘하의 특전사는 혁명군이 장악하고 있던 주요 거점과 할림 지역의 혁명군 소탕작전에 선봉으로 나서 쿠데타를 진압하는데 일등공신이 된다.



수하르토 장군 중심의 역 쿠데타군이 승자가 되는데 일등공신이 된 특전사령관(RPKAD) 사르위 에디 위보워 대령(사진 우측)과 수하르토 장군(사진 좌측)이 사태 당시 작전을 숙의하고 있다.

사르위 에디 장군은 그 후 북부 수마트라 지역사령관, 이리안 자야 지역사령관, 국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1974년 4월 주 한국대사로 부임하여 그의 가족이 한국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셋째 사위는 대통령으로 입신하였고 장남인 프라모노(Pramono Edhi Wibowo) 준장은 2008년 7월 1일 부로 특전사령관(Danjen Kopassus)에 취임하여 부친의 대를 이어 2대째 특전사령관이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수하르토 진영이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아이덜은 막후 조종을 통해 수카르노로 하여금 인사참모부장이던 프라노토(Pranoto) 소장을 납치된 야니 장군 후임으로 육군참모총장 대행으로 임명하자 아이덜은 프라노토 장군을 직접 전략사령부로 보내 수하르토 진영을 무력화 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아이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수카르노는 전용기편으로 보좌관을 반대에 있는 실리왕이(Siliwangi) 사단장인 이브라힘 아지(Ibrahim Adjie) 소장에게 보내 비상 시 즉각 출동하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도록 요청하였고 부관을 시켜 자카르타 인근에 주둔하는 특전사에도 같은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수카르노 총성과 장군인 이브라힘은 이때부터 자신의 부대를 직접 장악하게 되자 8월 25일 삼과의 밀약에 의해 아이덜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루꾸만(U. Rukman) 소장의 병력차출은 좌절되고 만다. 오후 4시경 대통령의 신변을 걱정한 데위 부인이 할림으로 수카르노를 찾아왔고 5시경에는 라흐마와띠(Rachmawati), 수끄마와띠(Sukmawati), 구루(Guruh) 등 수카르노의 어린 자녀 3명을 전용기에 실어 반동으로 피신시켰다. 이제 수하르토 장군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카르노, 아이덜이라는 양자 대결 국면에서 수하르토가 끼어든 삼각구도로 확대되면서 그 중 한 사람의 승자만 가려야 하는 운명적인 시각이 다가온다.

동부 자바 지역사령부 소속으로 혁명군에 가담하여 대통령궁 주변을 점거하고 있는 제530대대에 대한 설득작업은 이 부대 지휘관들을 잘 아는 바수끼 라흐만(Basuki Rachman) 소장, 전임 대대장을 역임하였던 소비린 목파르(Sobirin Mochtar) 준장, 전임 사단 정보장교였던 알리 무르토포(Ali Moertopo) 대령 등이 나서 회유한 결과 오후 4시경 대부분 병사들이 투항하였으나 중부 자바 지역사령부 소속인 제454대대는 겨우 2개 중대만 전향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병력은 혁명군의 지시대로 방송국과 전신전화국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하르토 진영은 할 수 없이 방송국과 전신전화국을 탈환하는 임무를 사르위 에디 대령의 특전사에게 부여하였다. 오후 6시 특전사 제3대대 제1중대장인 화이잘 탄중(Faisal Tanjung) 중위와 소대장인 신

똥 뻘자이판(Sintong Panjaitan) 소위는 대통령궁 지척에 있는 국영라디오방송과 전신전화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큰 저항 없이 불과 30분만에 두 건물을 제압하자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운똥 중령휘하의 혁명군 일부는 투항하였으나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공격부대가 최정예부대인 특전사라는 사실을 알고 승산이 없음을 미리 간파한 제454대대는 7시 30분 트럭에 분승하여 혁명군 본부지역인 할림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대통령궁과 그 주변 전략지를 지키던 혁명군이 수하르토군에 밀려 할림지역으로 쇄도하자 삼(Siam)은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병력을 공군본부 역내로 진입시키고자 요청하였으나 공군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뽀독 그데 지역에 있는 민병대와 합류하라며 문전 박대해 버렸다. 심지어는 민병대 측에서 요구하는 2천정의 무기 배정마저 거절해 버렸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세를 읽은 공군 수뇌부는 이제부터는 혁명군과 결별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계산이었다. 혁명군이 진퇴양난에 처하자 삼, 운똥, 수빠르즈, 루꾸만, 뇨노 등 당 수뇌부는 아이덜의 자이트에 모여 비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은 혁명군 주력부대인 제454대대와 제530대대가 수하르토 진영에 투항하고 대통령이 거사를 당장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탓에 거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자고 제의하였다. 즉 수카르노를 다시 국가원수로 복귀시키고 수카르노를 전복시키려 했던 모든 행동을 이 시간 부로 중단하며, 대통령을 수하르토 진영과 격리시켜 육군참모총장 대행으로 기 임명한 프라노토 장군과 수카르노 체제를 구축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군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고 오늘 새벽 발생한 장성 납치사건은 단순한 육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비상회의가 끝난 시각인 밤 9시부터 아이덜은 공군 통신망을 이용해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곳으로 비밀스런 접선을 시도한다.

‘일일 천하’로 막을 내리는 10월 1일 토요일, 운명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다.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 **장**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6**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2. 가정주부/생활영어

- 6)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알아
(=내 걱정은 마. 난 바보가 아니니까).
I know what I am doing.
- 7) 내가 뭘 가졌지? 돌아봐
What do I have got?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주) have got=have 의 뜻
- 8)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야
Not that I know of=Not that I am aware of=Not to my knowledge
(주)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럴 거야= That I know of. 내가보지
론 아니야 Not that I see, 내가 듣기론 아니야 Not that I heard
of, dl 표현들은 아주 자주 쓰이므로 필히 외워야 합니다
- 9) 내가 알아볼게
I will look into it
- 10) 내가 어떻게 아니?
How do I know?

다른 예문들

내가 이기적이었어. I have been selfish.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Unless I am mistaken=If I'm not
wrong=If I am not mistaken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I will see what
I can do.
내 집이라 생각해. (= 우리 집이 네 집이야.) Our house is
your house=Make yourself at home.

3. 전화영어

- 6) 잠깐만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One moment, please=One second, please=Just a moment,
please=Just a minute, please= Hold the line, please=Hold
on, please= Do not hang up the phone, please=Don't
hang up on me (전화 끊지마: 친근한 경우)
(주)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dialed the wrong
number=You've got the wrong number= What number

are you calling? I am afraid that you pushed the wrong
button 전화 잘못 걸었네요 (주) There is no one by that
name= 그런 사람 없는데요

- 7) 지금 통화 중 인데요
He is on the line = He is on the phone =He is on the
another phone=He is on the other phone=He is taking
on another telephone= Line is busy = The number is
busy=Line is engaged (영국영어)

(주) He is still on the line 아직도 통화 중입니다
(주) Extension is busy: 구내선이 통화 중입니다
(주) Thank you for waiting=Sorry to keep you
waiting=Sorry for your waiting=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 8) 통화가 끝나는 대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As soon as the line is free, let me put him on the
line=When the line is free, I will give you a return call= I
will put him through when he hangs up the phone= I will
patch him through when the line is available

(주) You will be automatically connected shortly(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곧 연결됩니다: 녹음된 교환원의 목소리),
patch through (연결하다) 라는 표현은 미국드라마(일명:
미드) "24" 에 수십 번 나옴

- 9) 연결됐습니다
You are connected=You are through=Go ahead,
please=He is on the line=Your party is on the line

(주) I've got him on the phone=I've got him on the line(연
결 됐습니다)은 아주 고급영어는 아니나, 미국영어 에서는
친근하게 오히려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 10) 스미스씨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Hello, William Smith's office. How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주) 차후, 업무상으로 친해지게 되어서 Direct Tel
Number(직통 전화)를 알 수 있게 되면 Hunting Line(대표
전화)은 거치지 않아도 되나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토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다(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 참고 다시 자기 이름을 가 르쳐 줘야 한다)

다른 예문들

스미스 씨와 약속한 것을 확인 차 서우서 전화하는 니콜라스 Kim이라는 사람입니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This is Nicolas Kim calling from Seoul, Korea to confirm my meeting appointment with Mr. Smith

(㉞) Korea: "코리아"라고 발음하지 말고 "코우리아"가 쉽게 알아듣고 career(경력): "케어어"라고 발음하지 말고 "커리어"가 쉽게 알아듣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요

He is in a meeting=He is at the meeting= He is in a session=He is in a conference=He is attending a meeting now=He is presiding over a meeting now(회의를 주재 중이다)

* 지금 사무실에(자리에) 없는데요

He is not in the office now=He is not at his desk now=At this moment, he is not at the station(장소)

(주) He is somewhere around the office (사무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He went out for lunch(점심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He went out for an appointment outside (외부 약속 차 나왔습니다)

H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방금 자리를 뜨셨는데요)

He is washing his hands now =He is in the rest room now(화장실 갔는데요)

He is on the way to the office (출근 중에 있습니다)

He is on vacation(휴가 중입니다)

He is on annual leave (년 차 휴가 중입니다)

(주2) (월차휴가: Monthly leave,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He is off today (오늘 비번이라 안 나오니다)

He is not working today (오늘 근무하지 않습니다)

He is absent today (오늘 결근입니다)

He did not come into the office yet= He is not in yet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

He is out now (출타 중 입니다)

He is not available now (부재중입니다)

He is out of town for the business trip (출장 중이라 이 도시에 없어요)

He was transferred to Boston office(보스톤 사무실로 전근 했습니다)

He did not work here any more (여기서 더 이상 근무 안 합니다)

He resigned himself=he left the office(사직했습니다)

He has gone home=He has gone for the day=He already got away from the office (퇴근했습니다)

I have no idea of his whereabouts(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골프영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린 방송국 골프 중계에 서 홀킵에 가까이 붙었다는 해설자(sports commentator)의 말을 자주 듣는데 이 표현은 틀린 것이다.

Hole(British English; 영국영어) 은 Cup(American English; 미국영어)과 같은 뜻이다.

Golf cart=Caddie cart는 캐디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이고, 직접 player가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golf car 일명 "Buggy"라고 한다

(㉞) cart: 바퀴가 2개 달린 손수레.

먼저 치는 player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뜻을 가진 "Honor"의 정확한 발음은 "오너"가 아니고 "아너"가 맞다. "OB" (Out of Bound: 공이 흰 말뚝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경우)인지 확실치 않아 잠정 구를 치는 경우 흔히 "프로" 한 번 더 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 정확한 표현은 "Provisional(프로비저널) Ball"이 맞다 (㉞) provisional 잠정적인, 임시의.

계속해서 유의한 단어 및 표현을 소개하면

6) Bogey-free game

보기가 하나도 없으면서 72타 이하로 치는 게임 = flawless game (결점이 없는 게임)

7) our putting was a little bit shy(=a little bit short)

네 퍼팅 은 좀 짧았어

(note) 원래 shy의 뜻은 "부끄럼을 타는"의 뜻인데 Sports에선 "짧은"의 뜻이다. "Don't be shy! Come On. Go for it! 부끄럼 타지 말고 자자 한번 해봐"할 때 많이 쓴다

8) 참 잘 했군요(참 잘 쳤군요)

Very nicely done! =Very nice! =Well played! =Well done! =Well executed

(주) 일 같은 것을 잘 했을 때는 Good job! = Excellent job! = Superb job!을 쓴다

9)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하겠군요

He needs to be more aggressive=He has to be tough

(주) It's going to be tough shot: 힘든 샷이 되겠군요(이때의 tough는 어려운 이란 뜻)

10) 기록은 당분간 안 깨질 겁니다

The record might not be broken for a while.

다른 예문들

Trusting your instinct is part of it (=game):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도 경기의 일부분입니다

(주) "Basic Instinct":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 제목

K.J.Choi is very solid at the top:

최경주 선수 선두에서 아주 견실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㉞) solid(견실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It couldn't be any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최상이다)

When pressure is on me, I have tendency to hit left:
부담감이 생기면 난 왼 쪽으로 공을 때리는 경향이 있어

I am not myself today=I seem to be all thumbs today
오늘따라 이상하게 안 맞네.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지?
(㉠) 골프가 안 맞는 핑계가 365가지 혹은 3,000가지 라고 하는데 그 중 제일 마지막 핑계가 바로 영어로 이 표현이다, be all thumbs 손재주가 없다

5. 음식/접대 영어

- 6) 공짜는 없어(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Nothing is free = There is no free lunch=There is nothing free in the world
- 7) 맥주 한잔쯤은 괜찮아(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마실 수 있으니까)
You should not mind a glass of beer
(㉠) mind 걱정하다, 신경 쓰다. Mind your own business. 참견 마, 네 일이나 잘 해라, Mind your step 발 조심해, Never mind 신경 쓰지마, I don't mind 난 신경 안 써
- 8) 연어 샐러드로 먼저 주문할래(main 식사 전에 starter로)
Let me kick off with salmon salad=I will start off with salmon salad
(㉠) kick off 시작하다, 출발하다, start off 시작하다(with 명사 또는 by doing), salmon 발음은 새먼 [sæˈmɪn] 켈몬이 아님
- 9) 맛이 형편없어
It tastes awful
(㉠) 맛이 좋아 It tastes delicious(=good=nice 음식이 맛있는)
- 10) 발동이 늦게 걸려 난(술 마실 때 등)
I am not a fast starter=I am a slow starter
(㉠) I am a slow starter 라는 표현은 골프나 다른 운동에서도에서도 쓰임(몸 푸는데 시간이 걸려 난)

다른 표현들

놀 때는 노는 거야(또는 화끈하게 놀아보자)
When it's time to play, it's time to PLAY

특별한 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야
Cooking for special occas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show something to someone you love

먹고 남은 고기 싸가게 봉지 좀 주세요
I need a doggie bag for my meat

(㉠) doggie bag 먹다 남은 음식을 넣어 갖고 가는 봉지

같은 것(음식 주문 등에서)으로 할게 나도 Same here =I will have the same one for me =Make it two

양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어울리는 포도주를 추천해 줄래요?

I will have lamb chop/Can you recommend a wine to go with it

(㉠) chop 두껍게 베어 낸 고깃점(흔히 뼈가 붙은), go with 와 어울리다, 와 조화되다(match) (예) Which source should I go with? 어떤 양념을 찍어먹어야 하니? (고기 집에 갈 때, 어떤 양념을 찍어 먹어야 할 지 모를 때)

이번엔 내가 낼게 This round is on me

6. 속담/격언/명언

- 6) 최고의 선생님은 경험과 여행이다
Best teacher is experience and travel
- 7)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 8) 담 저쪽 사과가 제일 달다(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The apple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are the sweetest
- 9) 때가 오면 알 것이다 Time will tell
- 10) 심은 만큼 거둔다 We reap what we sow
(㉠) reap 경작하다, sow 씨를 뿌리다

다른 예문들

사월의 비는 오월에 꽃을 피게 한다
They say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세차를 하고 나면 꼭 비가온대. 그제 자연의 첫 법칙이라더라
if you wash your car, it's bound to rain. They say that is the first law of the nature

(㉠) be bound to 꼭[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할 의무가[책임이] 있는

어느 놈들은 운이랑 운은 다 갖고 있어(좋은 직장에, 애인도 미인이고, 부자이고)
Some people have all the luck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구르는 돌에는 이끼기 안 생긴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or Success comes to him who can stick to his pursuit

(㉠) 우물 안 개구리 a big frog in a little pool“

성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 하게 됩니다
If you work hard, someday it will pay off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 pay off 성과를 올린다, 잘 되다.

다음 호(7번 제, 12월호)에는 7. 직장/발표/회의 영어 8. 출장/여행, 9 무역/경제/재정/금융 영어, 10 정치/사회 영어, 11 패션/쇼핑, 12 의학/건강 그리고 연말 특집으로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에 쓰는 영어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상)

JIKS 김일영 국장

교육이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 미국 14개 명문대에 입학한 재미 교포 학생의 중도 포기율이 44%라는 논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100명이 입학하면 44명이 중도 포기하였다는 것은 유대인 중퇴율이 12.5%, 인도인 21.5%, 중국인 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기에 주목을 받았다. 논문 발표자는 그 이유를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학교생활과 미국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인학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의 75%를 공부에 투자하고 나머지 25%는 봉사과 특별 활동에 할애한 반면 미국의 일반학생들은 공부와 기타 활동에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봉사와 기타 활동에 투자한 시간이 10%는 될까? 그나마 봉사활동도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했다면 실질적인 투자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물론 상기 논문 결과로 전체적인 것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우리가 당연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오류를 오랜 기간 지나쳐 왔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의 목표가 대학 입학에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많은 교육가와 학교가 교육의 목표를 '전인적인 인간' 등으로 설정은 하였지만 실제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결국은 대학 입학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도 부모도 오로지 대학 입학이 무의식 중에 최종 목표가 되었다. 대학만 입학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명문대학에 합격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명문대학 입학률이 높은 특목고를 가려고 난리이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밤 12시까지 2~3학년 과정을 선행학습하며 특목고 대비 학원을 다니고 더 열성인 부모는 초등학교부터 아예 특목고를 목표로 과외를 시킨다.

교육의 선진국은 교육의 목표를 대학 입학에만 두지 않는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도 성적만 높은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학 입학 후에 제대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평생 학습 체계를 갖추고 사회로 진출한다. 우리는 대학에서 취업을 대비하여 공부는 하지만 뭔가 공허하고 지친 상태에서 하며 또한 그 동안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이 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은 긴 인생의 여정을 앞에 놓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단기적이면 교육의 내용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의 열매도 작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의 두 번째 오류는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성적 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중하위권 학생은 학교 수업에서 소외를 당한다. 교과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이 나쁜 학생은 심한 경우 선생님과 부모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죄인이 되기도 한다. 시험을 통하여 성적은 서열화 되고 공부는 시험을 위한 요령 위주의 공부로 변질되고 있다. 국어 성적은 높는데 정보 이해력과 논리력은 낮고 역사 성적은 높는데 역사 의식이 없다. 영어 성적은 높는데 영어 활용능력은 떨어지고 과학 성적은 높는데 과학적 사고력이 낮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느 곳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것일까?

이러한 교육의 오류는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의 왜곡과 비효율을 증대시키며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동안 평준화를 명분으로 하는 인위적이며 통제적인 교육 정책은 궁



특별기고

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교육의 오류를 심화시켰고 또한 교육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 정책도 변화를 맞고 있는데 그중의 핵심은 '2012년 이후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초등학교들은 대학입학 제도와 방법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주체는 학교, 부모 그리고 학생이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결코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아는 이야기이지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특히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녀를 잘 알아야 하며 부모 자신도 객관적으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우리는 내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 자녀의 성격이 어떤지? 질병과 같은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기타 정신장애 등 자녀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락하게 하여 인생을 꽃 피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없는지를 알아 보고 고쳐줄 사람은 부모 밖에 없다. 자녀의 장점과 단점,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며 키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알아나아가야 한다.

자녀는 성격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적극적/소극적, 외향적/내성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을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자립심이 강하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매사에 반항적이거나 세상만사에 무관심이고 흥미가 없다면 그 원인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흔히 성격적인 것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나 어릴 적부터 부모가 전문가와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때와 의지가 중요하다.

질병과 체력은 학습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변비, 두통, 비염 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눈에 보이지 않게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력과 청력, 소화기능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체력이 약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학습결과나 태도가 미흡하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살펴 보자. 그 원인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성격 및 질병과 더불어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 정신적인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다. 정신지체, 자폐, 학습장애와 같이 눈에 띄는 발달장애도 있지만 쉽게 알 수 없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불안장애도 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경우 우리나라 소아의 약 10%가 해당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그밖에도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물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더 클 수가 있다고 한다. 아이는 극복능력과 표현능력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 좌절, 불안이 더 크고 깊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경험자의 도움으로 개선될 수 있다.

1983년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기존의 지능지수(IQ)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탐구하여 '다중지능이론'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여덟 가지 다중 지능은 1) 음악적 지능 2) 신체-운동적 지능 3) 논리-수학적 지능 4) 언어적 지능 5) 공간적 지능 6) 대인관계 지능 7) 자기이해 지능 8) 자연친화 지능으로 나뉜다. 우리 자녀는 다소(多少) 간에 위의 여덟 가지 지능을 갖고 있기에 잠재력이 가장 큰 지능들을 찾아 나가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것에 집중하면 동기부여와 진로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를 잘 관찰하면 자녀의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사항과 키워 나가야 할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중요한 일



은 자녀의 꿈과 미래를 함께 찾아 가고 격려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어릴 적부터 대화가 적으면 중고등 학생이 되어서는 부모와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를 본다. 꿈과 목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꿈이 있을 때 학습능력이 증가하고 동기 부여가 된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 자신도 객관적으로 인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유형에 대한 견해를 보면 근엄형/허용형, 독재형/방임형, 협박형/설득형, 호소형/타협형 등이 있다. 생각의 중심이 자녀에게 있는지 또는 부모에게 있는지, 통제와 간섭의 다소, 부모로서의 권위,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부모인지 살펴 보아야 하겠다. 나는 옆으로 가면서 자녀에게는 똑바로 가라고 하는 우(愚)는 적었으면 좋겠고 존경 받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살아있는 학문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가정 생활을 통하여 자녀가 사회를 깨닫게 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함께 실천하는 부모라고 생각한다.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생각의 다양성을 열어주며 또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계하여야 할 것이다. 문용린 교수는 저서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 소리'에서 부모가 자녀에 집착하지 않되 지극한 정성을 쏟고 원칙에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부모에게는 자신만의 교육철학이 더욱 아쉬운 때이다. 철학이 없을 때 너무 무관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남의 방법만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자녀를 위하여 교육이란 무엇이며 목적과 목표, 내용과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신문에는 다양한 교육색션과 필요한 기사가 있다. 백 명의 학생에게는 백 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한다. 교육 관련 서적도 참고하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맹신하지는 않되 내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한다. 순간적으로 성적을 높이는 공부 방법보다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교육항목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회성, 예절, 협동심, 책임감, 봉사정신, 사고력, 의지력, 자신감, 창조성, 감성, 등등 많은 것이 있는 데 결국은 인격과 실력(문제해결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항목들로 요약될 것이다.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는 JIS와 BIS를 포함한 6개의 국제학교 외에 25개 정도의 인도네시아 사립학교가 최근 10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고 한국학생들이 작게는 2~3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이들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는 International을 삽입하여 학교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한 International 학교가 아닌 인도네시아 사립학교로서 흔히 National Plus School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커리큘럼과 교사진이 잘 짜여진 학교도 있지만 역사가 짧아 여러 면으로 부족한 학교가 있다고 한다. 원어인 선생님들은 이러한 학교를 거쳐 온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학생들이 바르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어와 수학의 실력 저하 현상이 심하고 생활지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은 어느 학교를 가도 잘 적응을 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인도네시아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 보내놓고 그때부터 자녀의 학습상황이나 교우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여러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창으로 고래잡이하는 사람들 (하편)

고래야 또 만나고 싶다

어제 아쉬움만 주고 갔던 고래가 오늘 반드시 나타날지는 바다로 가 봐야 한다. 이정표와 미끼도 없이 우리는 오늘도 커다란 고래를 잡으려고 나섰다.

오늘은 물결이 어제보다 더 세찬 것 같다. 그래서 물빛도 더 진한 느낌이 든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자 어부들은 속도를 줄여야 한 다며 닻을 내렸다. 파도에 배가 부딪히면서 부서진 물조각들이 칠랑거리며 발 밑으로 들어 왔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다. 정말 손가락 두 마디 만큼만 더 흔들리면 물이 와락 들어 와 배가 가라앉을 것 만 같다. 온 몸이 움찔거리지고 얼마나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을까? 배 안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제일 깡마르고 농담 잘 하던 아저씨가 녹슨 빈깡통을 가지고 부지런히 물을 퍼냈다.

산골 아이로 자란 나는, 해가 산너머로 뜨고 지는 것은 알아도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더군다나 넓은 바다에서 일엽편주 탄 것은 난생 처음이다. 배는 가끔 뒤집어질 듯 흔들렸다. 공복이라 멀미가 생기려 한다. 솔직히 무섭기도 하지만 스틸은 청룡열차보다 더 좋았다. 한편으로 만약,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곳은 통신 사정이 좋지 않으니 아마 일주일 후 아니면 2주일 후 뉴스에 나오겠지.

인도네시아 TV 프로그램 탐험가의 발자국(Jejak Petualang) 제작 팀이 우리처럼 오지 섬으로 취재 갔었다. 그런데 나룻배가 계곡의 강한 물결에 휩쓸려 일곱 명 모두... 실종되었다가... 결국...

이럴 때,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는 걸까. 어제 밤 민박 집 아저씨가 고래 잡으려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만이 라고 했는데, 피디는 수영 할 줄 모른다고 한다. 나는 헤엄 정도는 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을까지는 5km 가 넘는다. 마음은 살아야지 하면서 머리는 이미 죽을 준비부터 하고 있다. 한 두어 시간을 그렇게 난리 치더니만 바람도 지쳤는지 조용해졌다.

해가 머리 바로 위에서 약간 기운 것을 보니 정오는 조금 지난 것 같다. 우리는 고래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고래의 먹이가 될 뻔 했으니 오늘은 정말 바람 불어 위험한 날이었다. 긴장된 몸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경쾌한 파도



의 리듬을 탔던지 해변에 도착하니 전신이 빠근하고 쓰셔온다.

어린 아이들과 돼지들이 해변에서 검은 모래를 파 먹으면서 놀고 있었다. 오늘은 돼지 팔자가 참 부럽다. 양쪽 귀에 구멍을 뚫어 줄을 매어 놓은 것이 하도 재미있어 가방



고래잡이 나갔다가 돌아 와 목선을 해변으로 끌어 올리는 장면

을 멘 채로 모래 위에 퍼 질러 앉았다. 될 수있는 대로 돼지 곁에 가까이 가서 앉았다. 아이들도 모래에 누워 놓고 있다. 나도 아이들처럼 모래위에 드러 누웠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사진 찍고 숙소로 돌아 와 가방을 열었다. 잠금 장치가 자석으로 된 곳에 철가루가 소복하게 붙어 있었다. 아, 그래서 모래가 까만 색이었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박집 아저씨에게 라마레라 마을에 대하여 이야기 듣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극동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플로레스섬에 위치한 라마레라 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채래식 방법인 창으로 고래 잡이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마을이기에 유일하게 고래잡이가 허용된 마을이다. 마을 모든 어선은 23척이지만 평상시에 물고기를 잡을 때는 모터가 달린 배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래를 잡을 시 모터가 달린 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말로 그랬다. 첫날 고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야~이야~’ 하면서 노를 저어 고래를 찾아갔다.

라마레라 주민들은 약 1천 여명이다. 모두 카톨릭 신자들이기에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며 마을의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르거나 남녀 간의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면 벌금이 있다. 작게는 1,500 ~ 5,000만 루피아(1500-5000\$)까지 된다고 한다. 지불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패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책임 못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래를 잡았을 경우에는 라마레라 마을에는 뚜안파나(Tuan(주인) Tanah(땅)가 있다. 뚜안파나는 라마레라 마을의 주인이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다. 그 뚜안파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라고 했다. 머라빠 화산의 주루꾼지(juru Kunci) 마리잔 할아버지! 비슷하다.

뚜안파나는 고래가 잡혔을 경우 고래를 잘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맞게 분배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가 분배해 주는 것이 불만을 품으면 안되며 자신이 받은 고기가 부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과 바꾸면 다음에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 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고항처럼 정겨운 라마레라

라마레라 마을은 전기 사용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까지만 전력을 공급 받는다. 전화선도 없고,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연락이 거의 두절 상태다. 그런데 마을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중계 탑이 가까워 핸드폰을 사용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숙소에서 산꼭대기까지는 걸어서 이십 여분 걸린다고 했다.

며칠 동안 끊긴 연락을 위해 어스름한 초저녁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널찍한 운동장이다. 오르막이라 숨이 가빴던 것을 내몰아 썼다. Signal 찾으려고 핸드폰 높이 쳐들고 좌로 우로 뛰

어 다녔다. 드디어 연결이 되었다. 내 가족이 있는 집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사무실로 먼저 걸었다. ‘뚜 우~’하며 신호가 가더니 “여보세요...” 라고 말한다. 전화 통화를 생전 처음하는 것처럼 ‘여보세요’란 말이 이렇게도 신기하고 반가울까, 서로 연락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갑갑했던가. 사람들은 말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지만 나는 ‘무소식은 희소식이 아니라 실종일 수도 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다. 전화 걸기 전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웠는지 귀뚜라미, 쓰르라미, 매미 소리가 귀에 들어 온다. 길에는 가지가 축 늘어진 고목들이 많았고 굽이 돌 때마다 툭 튀어나온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조금 전 회미하던 어둠이 사방을 두껍게 에워쌌다. 굵은 자갈들이 깔린 밤길, 그 위에 낮의 피로함을 살짝 포개니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 마냥 휘청거린다. ‘어,, 저게 뭘까?’ 반딧불이네! 날아다니는 반딧불 참 오랫동안이다. 반딧불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평상 모서리에 부딪혀 울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 별보며 먹던 삶은 옥수수가 먹고 싶다. 엄마도 보고 싶다. 엄마가, 엄마가….



아침은 이미 말했듯이 건빵보다 더 맛있는 비스킷으로 떼웠다. 점심은 배가 고프다고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었다. 종일 바다 중간 목선을 타고 있어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시간이다. 그들은 옥수수 섞은 밥이고 우리는 흰쌀밥이다. 라마레라는 화산지대라서 채소들이 귀하다. 반찬으로는 어찌다 생선이 있고 매일 삼벌하고 싱콩일 조금 뿐이다. 우리는 민박집에서 4일 동안 저녁만 그렇게 먹었다.

오늘은 민박 집 아저씨 인터뷰 중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다. 어부들이 목선을 타고 고래를 잡다보면 목선이 고래의 힘에 끌려 국경을 넘어 호주바다까지 끌려 간 것을 호주 정부에서 비행기로 귀국시킨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길 들으니 나도 모르게 캐들캐들 웃음이 나왔다. 라마레라(Lamalera)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저질러 놓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탔거나, 고래를 잡은 것은 행운이지만 그 행운에 불운으로 겹치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라마레라 사람들의 인사성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만큼이나 밝다. 마을을 지나가다 열 사람을 만나면 열 사람 모두 인사를 건넸다. 가끔은 대화 도중이라 귀찮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말을 걸고 무엇을 물으면 그들은 꼭 돈 주면 가르쳐 준다고 말해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인터뷰를 한 번 해도 꼭 먼저 ‘돈 줄까?’고 물었고 날마다 타는 목선 비용을 우리는 지불했다. 또 고래가 잡힐 경우 좋은 그림을 촬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300\$ 이상은 자신들에게 지불을 하여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에 일본인이 보름 동안 머물면서 낱알이 계산하지 않아 물매를 맞았다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길 은근히 하곤 했었다.



물물 교환시장의 모습

멀리서 바라 본 라마레라는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집들은 언덕 위 돌산에 있고, 마을 앞은 바다 뜨거운 햇볕 그리고 황무지 같은 땅이라 농사일은 힘들다고 한다. 교통 수단은 트럭을 개조하여 버스로 이용 하였고 아직도 물물 교환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에도 가 보았다. 예를 들면, 야채가 비싸기 때문에 옥수수 하나와 물고기 한 마리. 아니면 바나나 한 줄과 물고기 한 마리. 살아 있는 닭한 마리와 야채 두 소쿠리. 등등...

마을의 여인들은 모두 시리삐낭(siri pinang)을 복용하고 있어 입안이 붉은 색으로 가득했다. 왜 그걸 즐기느냐? 는 내 물음에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지만 여자들은 이걸 즐긴다고 하며 분필하고 붉은 열매를 잎아 싸서 자기 입에 넣어 껍질 씹더니 하나 만들어 나에게 권하기도 했다.

마을에는 모기가 많았다.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파파야(Papaya)잎을 고래 기름에 데쳐 먹으면 괜찮다고 요리해서 주는데 인터뷰 떠나다 PD가 자꾸 먹으라기에 먹어보니 고래는 질기고 파파야 잎은 쓴맛으로 입안 가득했다.

오늘은 밤 낚시 촬영 하기로 했다. 불빛 하나 없이 줄낚시를 하는데 바늘에 미끼를 달아 그저 느낌으로 낚아 올린다고 한다. 달빛이 빠진 밤바다에서 노를 저으니, 물속에서 하얀 물방

울들이 마치 토란잎 위에 이슬방울 또르르 굴러다니는 것 같고 하얀 진주알처럼 영롱하다. 한참이 지나도 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배가 해변에 닿아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PD가 뒤따라 뛰어내리는데 파도가 훌쩍 덮쳤다. 카메라가 젖었다. 우리는 숙소에서 드라이로 오랫동안 카메라를 분해해서 말리는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라마레라 마을 밤풍경은 불빛으로 뒤덮였다. 추억과 사랑의 불빛을 품고 있어 누구나가 와도 고향에 온 느낌이 들 것이다. 하늘에는 별과 달빛, 가족들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 지붕 아래로 새어 나온 화목의 불빛, 그리고 길에서 만나 동심을 찾아준 추억의 반딧불.

라마레라를 떠나 오면서

사일동안 목선을 탔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목선을 타고 라랑뚜까로 가기로 했다. 이른 아침부터 탔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지는 지금까지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 살면서부터 노을만 보면 가슴이 먹먹했다. 이제는 잊어야지 하면서 가슴 속에 키워 온 커다란 그리움을 꺼내 바다로 던졌다. 낯선 바다에 던져야 그리움이 길을 잃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리움이 던져진 바다는 노을이 슬프게 번지고 있었다.

한밤중에 도착 한 라랑뚜까, 마땅한 숙소는 없고 또 신부 부모님 집에서 하루를 신세졌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른팔이 무겁다. 붉은 자국이 여러 군데 나있고 통통 부어 열도 난다. 살짝 굵으니 미칠 듯이 가렵다. 잠결에 가려운 것을 느꼈지만, 너무 고단했던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홀이불만 뒤집어 썼는데 다. 나는 그 집 딸과 함께 잤는데 나만 잔뜩 물렸다

모기로부터 PD는 멀쩡하다. 그런데 PD는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다. 어제 목선을 타고 오는 도중 밤이 되었고 목선의 엔진 소리가 뿌우욱~ 하더니 갑자기 멈췄다. 알고 보니 어느 마



을 지나다가 마을 앞바다 작은 배들을 묶어 놓은 끈에 우리가 탄 목선 엔진이 걸렸던 것이다. 우리는 엔진을 고친다고 잠시 머물자 젊은이들은 우리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고장 난 엔진을 고친다고 정신이 없었다.

잠시 조용하더니 큰 배를 몰고 와 우리가 탄 목선을 빙빙 돌면서 쿡쿡 박았다. 한 번씩 박힐 때마다 목선은 뒤집어질 듯이 흔들렸다. 눈을 떠도 감음 것처럼 어두운 바다. 사방을 분간 할 수 없어 무서웠다. 잠시 조용하더니 ‘아~’ 하는 소리가 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투닥닥 났다. 목선 앞머리에 앉아 있던 PD가 그들이 던진 쇠파이프에 어깨를 맞았던 것이다.

이 늑지대 같은 플로레스 섬을 드디어 오늘은 떠날 것이다. 안개가 스물스멀 날아다니는 이른 새벽이다. 조금한 마음에 일찍 출발하였더니, 마우메레 공항에는 아직 몇 사람만 나와 있다. 조금 후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작은 공항에 갑자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린다. 이유를 물으니 5일 전(우리 오던 날 슌바 섬에 고장 난 비행기) 발리 행 비행기 한대가 결항했는데, 그때 탑승 못한 승객 100여명을 매일 20명씩! 나눠 탑승시키는 중이라며 키 큰 남자가 말했다.

어제 열 네 명이 탑승했고 자신은 티켓이 있어도 못 탔는데 오늘은 20명 정도 탑승 할 거라며 자신의 일을 남의 이야기 하듯 한다. 항공사 직원이 오늘 탑승자 명단을 불렀다. 보딩패스를 나눠주며 오늘 탑승자는 25명뿐이라고 외치자 웅성거림과 함께 26번째 아주머니가 안경 밑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어제 또 출발을 못해 오늘은 꼭 가야 한다며.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출발 또한 보장이 안 된다.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남녀 두 사람을 붙잡고 제의를 했다. 함께 숙소로 가서 티켓을 구하고 출발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들은 공무원인데 출장 가는 길이란단다.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우리는 함께 티켓 구하러 갔다. 항공 직원에게 ‘무조건’ 내일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담배 값을 바라

며 그들은 티켓을 우리 숙소 배달까지 해 주었다. 티켓을 손에 거머쥔 이상 비행기는 무조건 탈 수 있다.

곱슬머리 여자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모르니 비행기 좌석에 앉거든 그 때 하자며 미웠다.

이다. 사실 나는 모기 물려 통통 부은 팔뚝을 보며 말라리아는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멀쩡한 것을 보면 그 모기가 말라리아가 아니던지 아니면 라마레라에서 고래 기름에 데쳐 먹은 파파야 잎이 효과가 있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나시고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문 앞에 거울이 보인다. 모처럼만에 여자로 돌아 와 거울 앞에서 본다. 팔과 손등은 피부는 이미 식빵 껍질처럼 가무잡잡하고 얼굴 여기저기에 기미가 그려져 있어 속상하다. 문득 탐험이고 체험이고 여자이고 싶어진다.

플로레스 섬!

라마레라 다시는 안 가고 싶으면서 죽기 전에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질 것 같다. 고생스럽게 겪은 일들이 나에게 살아있는 교훈이길 바란다.

라마레라 마을이여, 플로레스 섬이여 안녕~



글, 사진 : 김성월

2003년 월간문학21 수필로 등단 해 미래문학회원, 의성문인협회원으로 현재 수라바야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말랑’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닉네임은 이름을 딴 별과 달.

hansol0508@hanmail.net



계약법(4)

(Hukum Perikatan)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2. Somasi(최고)

12.1.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Somasi라는 단어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 용어이며 인도네시아어로 Teguran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Somasi의 원래의 뜻과 Teguran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 Tegur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원어 그대로 Soamsi로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라는 뜻이며 Somasi는 채무를 상환하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명도하라,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재촉을 받을 때, 특히, 채권자가 채권 회수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받은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취하는 1차적인 조치는 통상 채무자에게 미팅을 요청하여 채무자와 대면하여 구두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Somasi란 제목으로 시한을 정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Somasi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첫 수순이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12.2. Somasi의 법적인 효력

민법 제 1243 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만기 이후 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를 선언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도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 선언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Default 선언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될 수 있다. Somasi는 이 만기 문제와 Default 선언 효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Somasi이다. 채무자에게 Somasi를 보내면 법적으로 만기가 되고 Default 선언 효과가 있다.

12.3. Somasi 방법

권리보유자/채권자가 직접 하는 방법,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 채권자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경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받아 드리는 정도는 통산 독촉장 정도이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절차가 번잡하고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청구 계획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은 변호사비가 발생하나 편리하고 채무자가 받아드리는 정도가 시리어스하다. 변호사가 Somasi를 한 경우에 이를 묵살하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며 통상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리어스하게 반응을 보인다.

13. Wanprestasi(계약위반)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위반 행위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델란드 법률전문용어 그대로 Wanprestasi(완프레스타시)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라는 용어가 있지만,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라는 용어는 계약위반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이 그냥 원어 그대로 Wanprestasi라고 쓰고 있다. Wanprestasi하면 자연스럽게 손해 배상이라는 문제가 대두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Wanprestasi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13.1. Wanprestasi의 종류

13.1.1.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Wanprestasi



“예”를 들면 2008. 10. 31 까지 특정 물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특정 물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3.1.2.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이행한 Wanprestasi

“예”를 들면 2008. 10. 31 까지 A급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A급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3.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긴 했으나 약정한 시기에 이행치 않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행한 Wanprestasi

“예”를 들면 2008. 10. 31 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2008. 10. 31. 이후에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4. 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을 어기고 행한 Wanprestasi

“예”를 들면 시장에 판매하는 자사 제품은 반드시 A사를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Exclusive 계약을 맺고 슬그머니 자사 혹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3.1.5. 상술한 형의 혼합 형태 Wanprestasi

“예”를 들면 2008. 10. 31. 까지 A급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8. 10. 31. 이후에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2.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사항 범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 13.2.1. 계약대로 이행 청구
- 13.2.2. 손해배상 및 계약대로 이행 청구
- 13.2.3. 손해배상 만 청구
- 13.2.4. 계약 해지 청구
- 13.2.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13.3. Wanprestasi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다르게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민법 제1365조). 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계약 위반 내용을 시인하고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면 문제가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인 경우에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부담을 줄여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아예 손해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 제도를 통하여 강제처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계약 위반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비 배상, 손실 배상 및 이자 배상으로 정하고 있다.

13.3.1. 경비 배상 : 계약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더를 가진 무역회사와 생산시설을 가진 봉제공장 간에 신사복 1,000벌을 2008. 10. 31.에 Delivery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봉제공장은 약정한 대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신사복 1,000벌을 생산 완료하고 무역회사에게 Delivery하려고 하였으나 무역회사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Wanprestasi에 해당되며,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부자재비, 포장비, 인건비, 공장 가동 경비, 금융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3.3.2. 손실 배상 :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Show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출연하지 않은 가수는 Show업체가 이미 지급한 공연장 임차료, 광고비, 장비/설비 임차료 등을 Show 업체에게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약속한 가수가 출연을 하지 않아서 흥분한 청중이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가수는 청중이 파손한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13.3.3. 기대이익 배상 :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으면 발생했을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계약대로 무역회사에게 납품했으면

Rp.10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무역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봉제공장이 기대이익 Rp.10억을 놓쳤으므로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놓쳐 버린 기대이익 Rp.10억을 봉제공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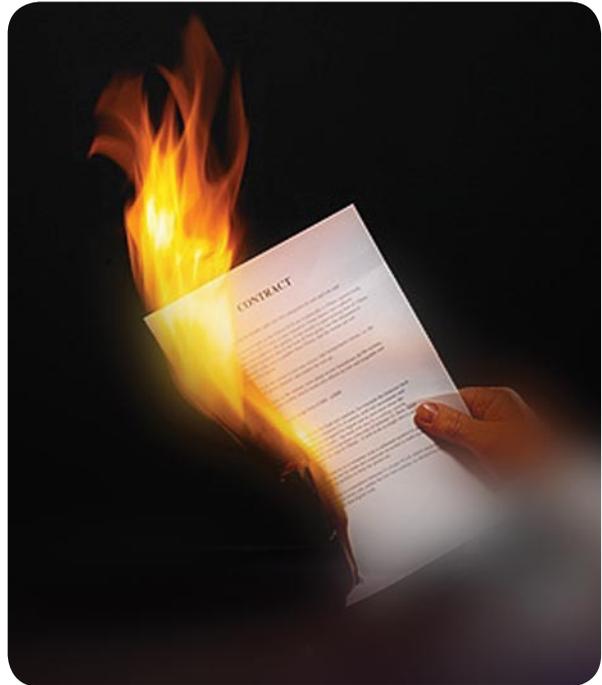
13.3.4. 이자 배상 : Wanprestasi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자 기산시기를 손해 발생 시기부터 요구하느냐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일자부터 요구하느냐는 청구자의 자유이며, 민법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년 6%이나 소송 청구 시에는 통상 세법에 기준하여 월 2%를 요구하고 있다.

14. 계약 해지

14.1.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판결을 받아 내야 계약이 해지된다. 많은 일반인들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은 상식과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인 A사와 건설업체인 B사 간에 A사의 공장 건물 건축을 계약하고 B사가 시공하는 도중에 시공 중인 건물의 Quality가 계약과 다른 것이 발견되어 A사가 계약 위반 이유를 들어 B사의 시공을 중단시키고 C사에게 시공을 시켜 건물을 완공시킨 경우에 B사가 A사를 상대로 계약 일방 해지 사유를 들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걸어오면 A사가 많이 불리하다. 계약서 내용 중에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을 위반한 B사는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없고, 건물 Quality가 계약과 상이한 것이 발견 된 후에 A사와 B사 간에 계약 해지 합의가 없으므로 법에서는 오히려 A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일방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B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A사에게 명할 가능성이 높다.

14.2. 민법 제1266조는 모든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계약 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위반 내용이 전체 계약 내용에 비해 미미한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자가 너무 큰 손실을 당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사복 1,000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신사복 1,000벌을 납품했는데 단추 한 개가 잘못 달렸다는 이유로 납품을 받는 업



체가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며 납품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납품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 내용의 정도에 비해 납품업체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법은 계약 위반자의 위반 내용에 상응한 책임만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어느 쪽의 손실이 더 큰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할 손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상대방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판사가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소송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은 판사가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한 사항은 모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 바람직하다.

15. 책임 전가

민법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전가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전가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 전가이다. 파업, 강도, 도난, 소요사태, 화재, 법규 변경으로 인한 계약위반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하순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다.

역사의 파도 속에 잊혀진 섬 **온러스트** Onrust



글 : JKIS 사회과 교사 사공경

저 멀리 떠있는 섬들은 아득하다.
 버려진 섬에도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
 꽃피는 섬에 바다를 삼킬 것 같은 노을이 진다.
 사랑했다는 기억조차 잊고 돌아오지 않는 고래를 기다린다.
 방과제 끝에 앉아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초고속 성장,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승진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속도전에 적응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속도가 붙은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속도를 멈추고 싶어도 이 사회에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멈출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다에 가야 한다.

지나온 삶의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한 온갖 상념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섬에 가야 한다. 음악을 들어도 소리만 들리고 그의 미가 들리지 않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섬에 가야 한다.

그러나 온러스트(Onrust)의 역사는 낭만과 휴식과는 거리가 멀다.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데……. 섬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생은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던가? 온러스트에서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망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생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리라.

향료 무역의 거점 Onrust

Onrust 섬과 그 주변의 섬은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사용하기 전에는 Banten 왕가의 휴양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섬의 소유권을 두고 Banten 왕가와 자야카르타(Jayakarta- 현재의 Jakarta)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자야카르타는 이 섬을 그들의 소유로 하고자 했는데, 자야카르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Banten 왕가는 그 섬에 대해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뿔라우 스리부 전체가 자신들의 통치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VOC(동인도회사)는 첫 함대를 아시아로 보낸 후에, 그곳에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10년 Banten에서 무역을 독점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 절실했다.

대항해 시대를 맞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많은 배들이 동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이 주변의 군도를 지나갔다. 그들은 중국의 차와 실크, 일본의 구리, 그리고 말라카 해협과 자바해(Java Sea) 주변 군도의 향료를 가져갔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무역 물품인 향료를 두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심했다. 동인도 회사를 가진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서 향료 무역을 독점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VOC는 자야카르타(네덜란드 점령 후 바타비아로 명칭이 바뀜)를 무역거점으로 결정했다.

분주한 섬 Onrust

Onrust 섬은 동경 106도 44' 0", 남위 6도 02' 3"에 위치해 있다. 섬의 크기는 12헥타르 이고, 자카르타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Onrust 섬에 가려면 Marina Ancol, Angke와 Muara Kamal 등의 항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세 개의 항구 중에서 Onrust 섬에 가장 가까운 항구는 Muara Kamal이다. Kamal에서는 전통 쪽배를 이용해도 20분이면 섬에 도착할 수 있다. Onrust 섬은 빨라우 스티리부(Pulau Seribu- 천 개의 섬) 중 자카르타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빨라우 스티리부 주민들은 이 섬의 이름을 빨라우 까빨(Pulau Kapal- 배의 섬)이라고 알고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중엽 초기부터 18세기 까지, 이 섬에 KOMPENI라고 불렀던 수많은 VOC(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유의 배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끊임없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배를 수선하는 바쁘고 분주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은 "Onrust"인데, 이것은 네덜란드어로 "쉬지 않는" "바쁜"이라는 뜻이다.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인들과 이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Onrust"라고 불렀으나, 현지 주민들은 빨라우 까빨로 기억한다.

그 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건축-파괴-건축-파괴-건축-파괴)

① 17~18세기 - 조선소와 요새로서의 기능

아시아, 특히 동남아로 항해하는 배들은 긴 여정으로 인해 종종 수리가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VOC는 자카르타 만에 조선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자카르타 만에 있는 섬 하나의 사용권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 대표 L. Hermit과 자야카르타 왕자는 1610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협정을 체결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네덜란드에게 자카르타 만에 배를 건조(建造)하는데 사용되는 목재의 벌목을 허락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VOC는 자카르타 만에 있는 섬 하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Onrust 섬에 첫 건축 사업으로 부두를 만들었다.

1613년쯤에 VOC는 Onrust 섬에 조선소와 창고를 세우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해양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이므로 VOC는 조선소를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 네덜란드 총독 Jan Pietszoon Coen은 Onrust 섬이 조선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와 무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기를 바랐다. 그러한 목적으로 VOC는 시설물들을 만들기 위해 중국인들을 이 섬으로 보냈는데, 그 시설 중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것도 있었고, 유럽으로 싣고 가는 물품을 잠시 보관하는 건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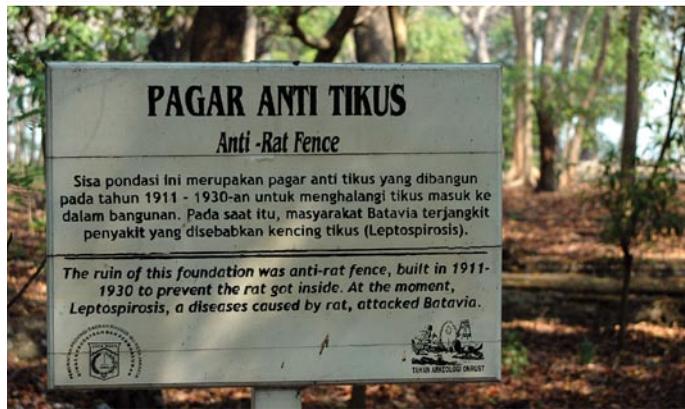


그러다가 1618년 Banten과 영국의 Onrust 섬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그리하여 Jan Pietszoon Coen 총독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 섬을 바타비아(자야카르타)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VOC는 1656년에 2개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각형의 작은 성을 지었다. 이 건물은 1671년에 각 구석에 요새가 있는 5각형의 성으로 넓혀졌지만 그 형태는 비대칭이었다. 이 요새는 벽돌과 돌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요새를 짓는 사업은 점차 커져 섬의 3분의 2를 요새로 뒤덮을 만큼 이 섬은 군사적인 방어의 목적이 커졌다.

1674년에는 목재 제재소를 만들기 위하여 풍차를 만들었다. 유럽으로 가는 선박에 실릴 물건들을 저장할 다른 창고들도 더 지어졌다. VOC의 통치하에서 Onrust는 이 지역 국제 무역의 중심이 되었고, Onrust 섬은 날로 번창하였다. 또한 1668년에는 작은 조선소와 부두가 Onrust 섬의 남쪽에 있는 Cipir 섬에도 만들어졌고 Onrust 섬과는 다리로 연결되었다. Onrust 섬의 창고가 더 이상의 물량을 수용하지 못하자, Cipir(찌삐르, Cuyper) 섬도 일시적인 창고가 되었다. 특히 Cipir 섬은 청산가리를 보관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해가 지남에 따라 VOC는 Onrust 섬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는데, 1691년에는 두 번째 풍차를 만들었다. Onrust 섬의 개발과 맞물려, 노동자가 많이 들어 왔는데, 1695년에는 직원이 148명, 노예가 20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이같이 Onrust 섬은 VOC의 방어지역으로 또 병참적 창고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강해졌다.

1795년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 바타비아(Batavia-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자카르타)에서의 네덜란드의 지위는 흔들렸다. 게다가 1800년 바타비아는 HL. Ball이 지휘하던 영국 함대의 공격으로 봉쇄되었다. 영국은 먼저 Onrust 섬과 그 주변 섬들을 봉쇄한 뒤 모든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② 19세기 - 해군기지의 기능

Onrust 섬이 심하게 파괴된 뒤, 1803년에 네덜란드는 Colinel DM Barbier의 계획에 따라 섬을 재건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건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06년, 영국이 또 다시 공격해 왔다. 1810년 해군 사령관 Edward Pellow가 지휘한 두 번째 공격은 Onrust 섬과 그 주변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Onrust 섬과 그 주변에 남아 있는 건물들은 1816년 영국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까지 영국 측이

이용했다.

영국이 떠난 후 이 섬은 1827년 네덜란드 사령관 Baron van der Capellen이 총독이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1828년에는 억류된 인도네시아인과 중국인 노동자, 죄수를 동원한 이 섬의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제국의 해군 기지로써의 역할을 위한 재건 작업은 1832년에 시작하여 1840년도에 완성되었다. 1848년이 되어 비로소 Onrust 섬의 업무가 재개되었다. 1850년에는 Onrust 섬 동쪽 가까이에 있는 Pulau Sakit(현재는 Bidadari)에도 Martello Tower가 만들어져 요새의 역할을 했다. 1856년에는 바다 위에서 배를 고치기 위해 수상 부두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해군 기지는 반세기도 유지하지 못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엄청난 유럽의 배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순다플라빠 항구와 Onrust 섬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1883년에 Tanjung Priok에 신식 항구를 만들게 되고 Onrust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다. 더구나 모든 시설들이 1883년 크라카타우(Krakatau)섬의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로 모두 파괴되었다. 이로써 Onrust 섬과 Sakit 섬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③ 20세기 중반 - 모슬렘 수용소와 감옥

1905년이 되어서 Onrust 섬과 Cipir 섬에 기상관측소의 건설로 Onrust 섬은 다시 주목받았다. 1911년부터는 Onrust 섬은 모슬렘들이 하지(성지순례)를 떠나고, 또 메카에서 돌아오는 것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검역소 역할도 했다. 3500명 정도의 순례자를 수용할 거처로 쓰기 위해 Onrust 섬은 새로운 구조와 용도로 건설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지 순례를 배로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 격리 장소(Haji Quarantine Barracks)로 35개의 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에 100명씩 수용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시설로는 모슬렘 숙소, 병원, 의사들과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 관리 사무실, 경비원 사무실, 그리고 샤워실이 있다. 1933년부터는 하지에 관련한 모든 활동을 Tanjung Priok 항구에서 담당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의료진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현재 Onrust 섬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Onrust 고고학적 공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섬은 "Zeven Provincien" (Seven Ships) 반란에 연루된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곳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리고 1940년에는 독일 전범 포로수용소로도 사용되었다. 바타비아에서 쥐로 인해 감염되는 Leptospirosis라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 섬에도 1911년~1930년 사이에는 쥐를 방어하기 위한 벽도 높이 세웠다고 한다.

일본이 1942년 바타비아를 점령했을 때, Onrust 섬과 그 주변 섬들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다. 일본은 이 섬들에 전투기가 자주 나타나자, 더 이상의 방어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문문화탐방

Onrust 섬의 시설물과 배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낙후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 섬을 범죄자들의 감옥으로만 사용했다. 일본군은 흰 타일로 만든 지름 2미터 정도의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에 10명의 죄수를 가두고 범죄자들끼리 경기를 붙여 이기는 자 1명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싸우는 도중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다. 최후의 승리자는 풀어 주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바로 눈에 자카르타가 들어오는 거리가기에 그는 더욱 흥분했으리라. 저 육지까지만 가면 이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일본 군인들은 등 뒤에 총을 겨누었다.



④ 20세기 후반 - 나환자와 거지들의 격리 수용소

인도네시아 독립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Onrust 섬은 보건부의 관장아래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 특히 나환자의 격리수용소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이 수용소는 Tanjung Priok 항구의 제 7기지로 옮겨졌다. Sakit 섬의 명칭도 나환자 수용소로 사용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0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Onrust 섬은 집 없는 거리의 사람들과 거지들을 수용하는데 사용되었고, 군사 훈련지로도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이 섬은 1970년까지 버려진 땅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인도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이르렀고 일반인들에게는 잊혀진 땅이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1968년 사람들이 대규모로 건축 자재물을 약탈해갔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지방 경찰의 허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볼 수 있듯이 이 역사적인 섬의 주요 부분은 황폐해졌다. 이 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자카르타 시장이 Onrust 섬을 보호해야할 역사적인 섬으로 선언한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1972년 이후 이 섬 건물의 일부를 가져가거나 철거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역사적인 유산 Onrust 섬의 재발견

현재 7.5헥타르(원래는 12헥타르)인 Onrust 섬은 3개의 이웃한 섬들, 즉, Kelor, Cipir, *Sakit 섬과 함께 역사적 유산이다. 이 4개의 섬들은 과거 자카르타만의 역사적 체계, 특히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고고학적 유산은 1972년 Onrust 섬과 그 주변을 문화재 법령(Monumente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되는 역사적인 유적지로 선언한 정부판결문(no.11/2/16/1972)으로 비로소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 군도 가운데 Onrust 섬은 가장 많은 고고학적 유산을 갖고 있는데, 섬 크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요새 기초와 풍차, 지하공간, 네덜란드인 묘지, 방파제, 해안제방, 전투지의 유물 그리고 수용소의 잔존건물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산이 천연재해와 인간들의 무지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다. 자카르타 행정부의 박물관과 보존청은 역사적인 공원인 Onrust 섬에 대한 발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잊혀진 섬 Onrust의 복원은 몇 년씩 중단되기도 하면서 현재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 작은 섬은 17세기 초부터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많은 유럽 항해사와 탐험가들이 이 섬에 들렀다. 탐험가들의 사건 기록과 같은 메모, 스케치와 그림들, 옛날 지도와 사진들은 온러스트의 역사를 들추는 출처와 근거가 된다. 그 중 지도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Onrust 섬 건설 시기를 보여주는 지도를 적어도 4장 찾아내었다. 이 지도 중 하나는 J.W Heidt가 1740년 그린 것인데, 이 지도는 Onrust 섬의 초기시대부터의 건물 청사진과 위치를 보여준다. 또 Jahanas Rach가 만든 약도(1772)도 이 섬을 복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약도에는 2개의 풍차와 통나무 연못이 그려져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발견한 유명한 탐험가 James cook이 제 1차 항해 때인 1770년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배 Endeavor(엔데버)호를 수리하기 위해 Onrust섬에 8일 동안 정박하였다. 배를 수리하고 바타비아에 한 달 간 머물 동안 나쁜 공기로 선원들은 건강이 나빠졌고 영국으로 향하던 중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탐험가 Francois Valentijn (1724-1726)은 그 당시 섬의 공무원 관리들이 부패하고 왕처럼살고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독일 탐험가 Johann Wolfgang (1739-1740)은 섬의 지도를 그렸다. 그 외에도 Johannes Vingboons(1665-1668), Johanes

Isaac de Graaf(1690-1705), Johannes Rach(1779), Hendrik Kobell(1779) 등 많은 탐험가들이 다녀갔다.

복원 작업을 하면서 수 천 개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쇠로 만든 신발 한 쌍으로 다이빙 신발인 듯 한데 이것은 죄수들이 신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 외 대부분의 유물은 세라믹 조각과 유리병 등이었다. 또한 건축 기술자들의 건축도구, 탄환, 건축 머릿돌, 돌바닥 등이 있다. 유물 증가 오래된 화폐는 1814년의 VOC 화폐이다.

또 풍차 터에서 이루어진 다섯 번의 발굴 작업에서도 많은 기구들을 발견했다. 나사, 볼트, 못, 스프링, 조각칼, 쟁기 등의 기구들의 주요부분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두 다 녹이 슬어 있었다. 또 다른 주요 발견 유물에는 병 조각, 접시, 그릇, Gouda 담뱃대(네덜란드 담뱃대), 숟가락, 화병 등 유럽, 중국산 도자기, 현지 도자기 등이 있다. 또 조사팀은 타일 조각, 유리잔 그리고 벽돌도 발견했다. 네덜란드에서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싣고 왔다고 한다. 이 벽돌들은 네덜란드에서 출항할 때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한다. 1987년에는 9월 한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요새 외벽의 남쪽 부분에서는 명, 청 왕조 때의 도자기들을 발견했다. 그 외의 많은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온러스트에 섬에 폐허로 남아 있는 건물의 역사는 건축할 때 사용된 벽돌과 접착재료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 17세기-18세기 건물들은 대부분 큰 사이즈의 붉은 벽돌을 사용했으며 시멘트와 모래, 조개껍질을 섞어서 접착제로 사용했다. 19세기의 건물들은 벽돌의 크기만 작고 색깔과 접착제는 18세기

와 비슷하다. Kelor 섬의 둥근 요새와 지금은 Bidadari라는 이름으로 관광지가 된 Sakit 섬의 웅장한 둥근 요새도 벽돌의 색깔과 크기를 보면 19세기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의 건물은 19세기에 사용된 벽돌보다 더 작고 누런색이며 시멘트와 모래만으로 접착제 재료로 사용하였다.

짧게 살다간 네덜란드인들의 묘지

Onrust 섬에는 오래된 네덜란드인들의 묘지가 있다. 묘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찍 생을 마감했다. 묘지 중, 이 섬의 총 관리자의 부인인 Johanna Kalf의 무덤의 팻말이 눈에 들어온다. 169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1719년 이 섬에서 죽었다고. 겨우 25살의 나이에...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VOC 장교 Cornelis Villwmsse vogel의 묘지에는 1695년 11월 네덜란드 에담에서 태어났고 1738년 이곳에서 43세의 생을 마감한 것으로 비문에 적혀있다.

살아가는데 깨끗한 물은 아주 중요하다. 17세기 초 Onrust 섬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 지하수를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 깨끗한 물 때문에도 많은 배들이 정박해서 물 공급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깨끗한 식수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 지방의 풍토병과 열악한 위생 공중 시설 때문에 그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

참고문헌 : <Pulau Onrust> 자카르타 문화교육부

153회, 154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공지사항



153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장소: Roemah Djawa Jl. Lebak Bulus Raya I No.85 Jak-Sel
(021) 7591-3558/ 0818-156-498(Rudy)
일시: 11월 15일 10시 - 13시
출발지: Apt Bona Vista (Jl. Lebak Bulus Raya)입구에서 9시 30분 집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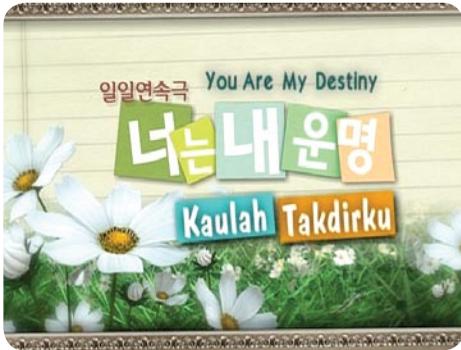
154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장소: Roemah Djawa
Jl. Lebak Bulus Raya I No.85 Jak-Sel
(021) 7591-3558/ 0818-156-498(Rudy)
일시: 11월 29일 10시 - 13시
출발지: Apt Bona Vista (Jl. Lebak Bulus Raya)입구에서 9시 30분 집결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드라마에서 퍼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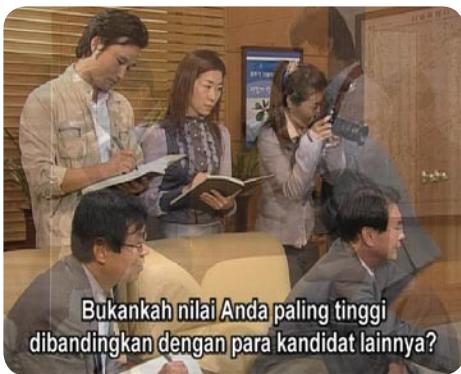


미국에 살면 영어를 미국인처럼 잘하려고 노력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제한적인 표현만 사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도네시아 인들처럼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역시 드라마 속 대화를 인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이지만 다른 단어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단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 제공 : 글 번역 / 작가 허영순
OKTN (KBS WORLD INDONESIA)

Bukankah nilai Anda paling tinggi dibandingkan dengan para kandidat lainnya?

너는 내 운명 “Kaulah taktirku” 중 에서 대구가 딸 수빈 과 아내 연실을 배려해 시장 공천을 포기하자 기자가 던진 질문 중에 “타 공천자 (후보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나요?”



Kandidat 은 후보자, 예정자라는 뜻으로 Calon 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예) Antara 5 calon DPR 3 kandidat dapat dinilai tertinggi.

5명의 후보자 중 최고평가를 받은 3명의 후보자

Kandidat 은 유력한 후보 (예정자)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Wastafelmu sudah terlalu usang.

주방기구가 너무 낡았네요(구닥다리네요).

usang 은 낡은 (너무 오래 사용 해) 뜻으로 Sudah tua 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Wastafelmu sudah terlalu lama dipakakai 또는 sudah terlalu tua.

일반적으로 sudah tua 이미 노후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래 되었지만 아직 상태가 좋을 수도 있죠...하지만 Usang은 이미 오래되어 낡은 것을 표현 합니다. 하지만 어감상 ‘낡은’, ‘허름한’ 이란 표현을 하고 싶으 시다면 ‘usang’ 이란 단어를 사용해보세요 .



Aku sudah **menghibahkan** tanahku untuk mendukungmu.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내 땅을 기증(증여) 했어요.

구청장인 남편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연실 ... 남편이 공천을 포기한걸 알고 내 뺄은 말입니다. 원조하다, 기부하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Sumbang 또는 **Bantuan Sumbangan** 하지만 연실은 본인 명의의 땅을 명의 변경하여 고아원에 기증 합니다. 한국어도 원조와 기증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상황에 따라 문장 속에 다른 뜻을 내포합니다. 본인 명의의 어떠한 것을 자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명의 변경하며 기증(증여) 할 때는 'menghibah' 를 사용해 보세요. .

Maaf kalau aku bersikap lancang.

무례 했다면 용서하세요.

새벽이를 나무라는 할머니에 대든 태풍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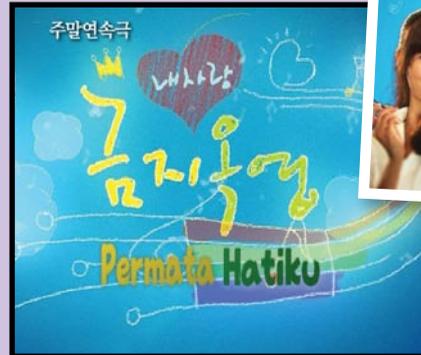
Maaf kalau aku bersikap lancang.

무례 했다면 용서하세요 .

누군가 당신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무례한 일이죠. 그릴때 **Kurang ajar**(교양 없는) 나 **Tak tahu sopan santun**(예의 범절을 모르는) 보다는 **Lanca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Tip: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 자주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을 "**Lancang tangan**" 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무례한 손이 되겠죠?

주부님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엄마가 뿔났다가 끝나고 내 사랑 금지옥엽이 10월 4일부터 방영되었습니다.



내사랑 금지옥엽 한국어원은

1. 금으로 된 가치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 경지옥엽
2.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 경지옥엽
3. 가장 귀중한 물건이라 하여 인도네시아어 제목을 Permata Hatiku. '내 마음의 보석'이라 하였습니다. Permata 는 보석을 뜻하는 말로 Batu berharga dan berwarna indah - 아름다운 색을 띠는 고가의 원석입니다.



첫 회에 허수경 아나운서가 라디오 DJ 로 출연 이런 멘트를 들려줍니다.

Apa pendengar tahu perbedaan nasib dengan takdir?

청취자 여러분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아세요?

운명은 앞에서 오는 돌이라 피할 수 있고, 숙명은 뒤에서 오는 돌이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참 다른 뜻을 지닌 단어 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Nasib(운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 인간적 힘.

Suratan 또는 Takdir : 타고난 정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라고 합니다. Ketentuan Tuhan 하나님 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합니다. 즉, 숙명인 것이죠.

합리적 인사고과 설계

1. 인사고과의 의의:

고과제도는 사원 개별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로써 해당 평가 기간 동안의 사원 근태(출결사항), 태도, 능력, 지식향상도, 업무실적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사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보상을 함으로써 근무동기 부여 및 업무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이다.

2. 인사고과의 목적:

1) 인력 배치 및 이동:

사원 능력에 적합한 적재적소 배치에 활용

2) 인력 개발: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 등 자기개발에 활용

3) 성과 측정 및 보상:

업무성과를 측정하여 급여인상, 상여, 승진, 승급 등 보상 및 동기부여의 자료로 활용함.

4) 조직 Performance 개선: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조직전체의 Performance를 향상함.

3. 인사고과의 내용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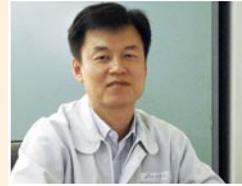
통상 인사고과의 항목으로는

- 1) 능력: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 2) 업적: 무엇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가
- 3) 태도: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가(적극성/협조성/책임감)
- 4) 성격: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성실성/근면성) 등이 있으며 직위/직급별로 차별화하여 운영을 하는데 고졸의 경우는 태도, 능력, 성격 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며 대졸 이상의 경우는 업적 및 능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를 한다.

4. 인사고과 결과의 활용:

1) 급여 인상:

정기 인사고과 결과에 의거 일정비율의 재원을 사원별로 차등화하여 급여 인상시 활용함으로써 개별 사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조직 전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동일 재원을 가지고 일정 사원에게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일하고 또 타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 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구분	능력	태도	업적	자세
관리자	문제해결능력 지위통솔능력 의사전달능력 협조조정능력	성실성 경의의식 자기개발성	실적 신뢰도 현직위 타당도	
일반사원	업무지식 인해판단력 창의력 실천력	성실성 협조성 적극성	업무의 질 업무의 양 공헌도	
	숙련도 통솔력 업무처리력 응용력	책임감 주의력 안전의식 협조순응도		정직성 근면성 소속감

사원대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조직 전체가 자연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해 갈 수 있다고 본다.

2) 보너스 지급 기준:

상기 급여 인상과 같은 개념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시 지급기준으로써 인사고과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평가결과가 S, A, B, C, D 5단계일 경우 보너스 비율을 각 단계별로 차별화(예, 각각5%)하여 운영한다면 S와 D의 차이는 20%가 되는데 각 등급별 얼마나 차별화 할 것인지는 복합적 판단에 근거한 경영진의 의사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승진, 승급:

승진급 역시 통상 고과결과가 가장 큰 비율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승진시 최근 3년간 누적 고과를 각 20%, 30%,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승급은 최근 1년간 고과가 A급 이상인 인원에 대해 선별하여 1~2호봉씩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4) 인력 구조조정:

인사고과는 인력구조 조정시 가장 객관적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정 기간의 누적 고과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전 준비한 구조조정 프로세스에 따라 인원을 정리할 수 있다. 통상, 구조조정 사유에 대해 개별 사원 또는 노동조합과 회사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투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누적 인사고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인

사고과의 절차 및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원의 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또한 평가의 정당성 및 결과의 당위성이 사원들과 얼마나 공유되어 있는지가 고과제도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인사고과 작성 사례:

- 1) 고졸사원
- 2) 전졸사원

PENILAIAN PERFORMANCE 고졸인력					Form 1
Periode Penilaian : . . 200_ ~ . . 200_					New
Nama Karyawan :					
NIK :					
Gol / Jabatan :					
Divisi / Dept :					
Tgl. Masuk :					
Masa Penilaian :					

Aspek	Items	Aplikasi	Nilai Tertinggi	Penilai		Score
				AL	ATL	
Kemampuan (Ability)	Daya Pemahaman Kerja (업무이해도)	Pengetahuan dan pemahaman pekerjaan dan perintah kerja serta kemampuan menyelidiki masalah yang timbul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Kemampuan Pelaksanaan (실행력)	Pencapaian kualitas & kuantitas kerja sesuai target & hasil yang di peroleh tepat pada waktu yang sudah ditentukan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Improvement (개선도)	Peningkatan hasil kerja & ide-ide / cara baru untuk menghilangkan pemborosan waktu dan tenaga	2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Tanggung Jawab terhadap Tugas (책임감)	Memiliki rasa tanggung jawab yang tinggi terhadap penyelesaian tugas dan selalu bekerja keras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Kecepatan dalam menyelesaikan tugas (업무스피드)	Kecepatan dalam menyelesaikan tugas & selalu tepat waktu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Sikap (attitude)	Semangat Kerja (의욕)	Semangat/motivasi melaksanakan tugas untuk mencapai target yang telah ditentukan dengan keyakinan penuh meski dalam keadaan yang sulit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Sikap Kerjasama (팀워크)	Harmonis & kerjasama dengan rekan satu team, team kerja lain, atasan dan berpartisipasi untuk kemajuan bersama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Disiplin dalam bekerja (규율)	Disiplin yang sangat tinggi dalam bekerja (disiplin waktu & kerja serta penampilan diri) & sikap sangat memahami apa yang diperlukan pelanggan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Tingkat Usaha (노력)	Tingkat usaha dalam pencapaian target sehubungan dengan tugas yang ditangani	10	S 0 A 0 B 0 C 0 D 0	S 0 A 0 B 0 C 0 D 0	
TOTAL			100			
NILAI						

Hasil Penilaian Prestasi ini mempengaruhi Promosi, Bonus serta bahan penting untuk mutasi karyawan, pendidikan & pengembangan karyawan, dengan demikian diharapkan penilaian diberikan secara tepat dan adil	AI : Atasan Langsung ATL : Atasan Tidak Langsung Angka penilaian masing-masing item tidak boleh melebihi nilai tertinggi yang telah ditetapkan
--	--



JIKS 책마루 도서관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내 복지관 (정문에서 들어서면 왼쪽 첫 번째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한글도서 21,000여권, 영문도서 4000여권으로 총 25,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장서는 초등용 도서와 중고 학부모를 위한 도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학,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언어,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 도서 확충 기금 마련 활동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여러 단체에서 도서를 기증하여 장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서가 준비되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JIKS 책마루 도서관은 활짝 열려 있다.



롯데 장학재단 도서 기증

롯데장학재단에서 1300여권의 좋은 책을 JIKS 책마루도서관에 기증했다. 10월초에 도착하여 현재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머나먼 이국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신의 꿈으로 채워가는 JIKS 학생들에게 책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롯데장학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도서기금 마련

2학기에 다양한 도서와 많은 양서를 구비하기 위하여 도서 확충을 위한 기금 활동을 벌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하

JIKS 책마루 도서관 안내

여 인천고 동문회, 재단 등에서도 이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으며,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초등학교부모님께서는 \$1000를 기부하는 등 총 약 \$5,000과 RP 6천9백여만만 모여, 이는 도서 구입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JIKS 책마루 도서관 주요 행사

2008년 JIKS 책마루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모든 행사는 책을 더욱 가깝게 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최대한 느끼며 책에 폭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들이었다.

1. 도서관 이름 짓기 공모전

우리의 손으로 도서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벌인 행사로 250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이름짓기에 공모하여 1차 책마루 도서관, 글벗 도서관, 푸른내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최종 결정은 3개의 이름 중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여진 도서관 이름으로하기로 정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스티커 붙이기 결과 초등의 4학년 김은지 학생이 제안한 책마루 도서관이 JIKS 도서관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책마루 도서관은 집안과 집밖을 이어주는 마루처럼 책과 우리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세계 책의 날 기념 행사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 (World Book Day)」으로 1995년 유엔총회에서 유네스코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날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현재 책의 날의 기원국인 스페인을 비롯해 프랑스·노르웨이·영국·일본·한국 등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영국에서는 이 날을 전후해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 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출판 관련 단체와 대형 서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JIKS 책마루도서관에서는 이와 발걸음을 맞춰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기념으로 예쁜 책갈피를 5월 2일 책을 반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미리 대출해서 책을 읽고 5월 2일에 반납해야 받을 수 있는 책갈피였다.

3. 작가와의 만남

3월 26일 학교 강당에서 황석영 작가, 김인숙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황석영 작가의 <삼포 가는 길>



과 김인숙 작가의 <바다와 나비> 등을 실은 LAUT DAN KUPU KUPU 라는 한국대표단편선이 인니어로 번역 출간되어 자카르타로 내방하면서 JIKS 중고생들에게 자신의 작품과 작가의 길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4. 9월 독서의 달 행사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즐겁게 책을 읽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를 여러 가지 진행하였다.

- (1) 책 읽는 우리 가족사진 또는 함께 책 읽는 친구들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고!
- (2) 추천 도서 책 광고 내가 직접 만든다!
- (3) 책마루 도서관 6행시 짓기
- (4) “내 이름은 캔~디” 쿠폰을 뽑아라! 대출하는 학생들이 하는 캔디쿠폰, 팡쿠폰 뽑기 행사로 캔디 쿠폰을 뽑으면? 캔디 당첨!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캔디를 뽑기 위해 책을 대출하여 읽었다.



5. 도서 골든벨 대회

<찾아라! 골든벨 도서에서 명구절을 찾아라> <골든벨 문제 내가 직접 만든다.>로 골든벨 행사를 위한 관심을 높인 후, 독서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 도서골든벨 대회가 9월 23일 4,5,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열렸다.

문제를 아깝게 못 맞춘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출전하는 기회도 가졌으며, 깜짝 선물 퀴즈로 작은 상품도 받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었다.

6. 책마루 신문 발행

도서관 입구에는 중등 도서반에서 만든 책마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 다양한 책 소개, 만화, 유머 등을 재미있게 배치하여 제1호를 발행했으며 한 학기에 2회 발행될 예정입니다.

JIKS 책마루 도서관 이용 Q & A

Q: 도서관 운영시간을 알고 싶어요.

A: 평일은 오전 7시 ~ 오후 4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이고,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 오후 2시까지입니다.

Q: 학부모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학부모 대출증은 방문하시어 도서대출증 발급 신청하신 후 익일 대출 가능합니다.

Q: 몇 권 대출할 수 있나요?

A: 도서 대출은 2주일에 3권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 도서는 2주일 안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월요일에 빌린 책을 2주 후 월요일에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반납은요?

A: 반납할 때는 반납함을 이용합니다. 학부모님의 경우 학생 편에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Q: 빌린지 2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덜 봤어요. 어떡하죠?

A: 도서대출증만 가지고 오셔서 반납연기하시면 됩니다.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Q: 도서를 너무 늦게 반납했나 봐요.

A: 반납연기를 안하고 도서반납이 연체되면(1주일이 지나 늦게 반납하면) 연체일수만큼 대출 불가능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3일 늦게 반납하면 3일간 대출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늦게 반납하면 일주일간 대출하지 못합니다.

Q: 대출한 도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ㅠㅠ

A: 도서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도서정가의 1.5배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도서가 대부분이고 도서가 서가에 배열되기까지는 10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찌면 서점의 도서보다 더 비싼 셈이죠. 모여진 돈은 다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쓰인답니다.

Q: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싶어요.

A: 좋은 생각이에요. 2003년 이후에 발간된 좋은 도서를 기증하시면 기증감사책갈피를 드립니다. 참, 생일에 기증하면 생일축하 책갈피를 드립니다. 단, 2003년 이후 발간된 도서, 정말 상태가 좋은 도서를 기증하셔야 합니다.

Q: 교과서도 대출할 수 있나요?

A: 그럼요. 도서관에서 교과서를 대출하여 복사한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 교민들에게도 도서관이 개방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월스트리트를 잡아 삼킨 괴물

The Monster That Ate Wall Street

신용 디폴트 스왑 채권 부실화에 대비한다던 보험증권이
어떻게 ‘대량살상 무기’로 전락했나

MATTHEW PHILIPS 기자 / 번역: 차진우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 사이에서 ‘주말 출장 워크숍(Off-Site Weekends)’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다. 금융사 직원들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 그동안의 긴장을 풀고 ‘세계의 지배자’로서 거둔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다. 요트 파티, 비키니 모델, 1000달러짜리 크리스털 샴페인을 떠올리면 된다.

1994년 JP모건 직원들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최고급의 보카 레이턴 리조트 & 클럽에서 비슷한 행사를 한 적이 있다. 이 모임은 훗날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됐지만 흥청망청한 파티 때문만은 아니었다(파티를 많이 하긴 했다). JP모건 직원들은 주말 내내 그 핑크색 스페인풍 리조트 안의 회의실에 틀어박혀 금융업의 역사만큼이나 해묵은 숙제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다.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위험을 줄일 것인가? 1990년대 중반까지 JP모건의 회계장부엔 기업과 외국 정부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융자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며 이 은행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도산 위험에 대비해 거액의 현금을 비축해야 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다른 보호장치를 마련해 그 비축금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 끝에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일종의 보험이었다. 채권 부실화의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고 그 대가로 보험료처럼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JP모건은 회계장부에서 위험을 털어내고 비축금을 돌려 쓸 수 있게 된다. 신용 디폴트 스왑(CDS: credit default swap)라는 이름의 이 방식은 금리와 원자재 값의 변동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방법을 약간 변형한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2년여 전부터 시장에서 떠돌고 있었지만 CDS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JP모건이 처음이었다. JP모건은 1990년대 중반 ‘스왑’ 테스트를 신설하고 MIT와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 출신의 젊은 수학·과학 전공자들을 채용해 그 복잡한 상품의 시장을 개척했다. 2~3년도 안 돼 CDS는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기 절정의 금융수단이 됐다.

“나는 그때 회의에 참가했던 몇몇 사람과 안면이 있다”고 당시 40세의 나이에 JP모건의 상무였던 마크 브리켈이 말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핵을 개발하는 모임에 초대받은 양 들떠 있었다.” 1940년대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의 핵물리학자 팀과 마찬가지로 브리켈을 비롯한 JP모건 팀은 자신들의 발명품이 괴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날 경제가 백척간두에 놓이고 월스트리트는 쑥대밭이 된 데는 이들이 14년 전에 풀어놓은 그 괴물 탓이 적지 않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 AIG는 투자은행·보험사를 비롯한 수십 개의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한 140억 달러 상당의 CDS를 부도낸 뒤 국민의 세금으로 겨우 구제됐다. 지난 1년에 걸친 금융체제의 실패를 되짚어 보면 상당 부분 CDS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DS는 62조 달러의 시장으로 커졌다가 지난주 5조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체 종목 시가총액의 네 배에 가까운 규모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CDS를 ‘대량살상 금융무기’라고 부른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CDS는 양자 간의 사적인 협상을 통한 계약이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책정할 만한 중앙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불투명한 ‘암흑물질(dark matter)’로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불량국가의 핵무기처럼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지금은 어

딘가에 숨어 무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파괴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JP모건은 보카 레이트에서 마련한 구상을 1997년 12월 실행에 옮겨 CDS 거래를 시작했다.

포드·월마트·IBM 같은 여러 대기업에 지급한 총 97억 달러 상당의 용자 300건을 모아 여러 ‘조각(tranches)’으로 쪼갰다. 그 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0%의 조각을 찾아내 이른바 ‘비스트로(Broad Index Securitized Trust Offering)’라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비스트로는 당시 JP모건의 뉴욕 CDS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25세의 MIT 출신인 테리 듀혼이 개발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업부를 거친 뒤 글로벌 은행과 헤지펀드의 고위직에 올랐다 해서 훗날 ‘모건 마피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우리는 은행들이 신용 위험을 장부에서 덜어내 보험사와 연기금 같은 비금융 기관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듀혼은 말했다. 그녀는 현재 독립해 런던에서 파생상품 컨설팅업체를 이끈다.

얼마 안 돼 CDS는 중남미와 러시아 같은 위험한 신흥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도국에 빌려준 용자금에 보험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훗날 엔론이나 월드컴 등 대기업의 몰락이 잇따르면서 회사 도산에 대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수단으로도 CDS가 안정맞춤이었다.

그 무렵 CDS 시장은 해마다 배 이상으로 불어나 200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04년엔 총 6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던 중 주택시장 호황이 찾아왔다.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금리를 내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미국인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모기지 담보 증권이 새로운 인기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

대출기관들이 모기지를 한데 모아 쪼개고 썰어서 채권을 만들면 투자는행·상업은행·헤지펀드·연금기금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받아갔다. 이런 모기지 담보 증권 다수는 CDS를 통해 부실화될 경우의 보호책까지 마련했다. “모두가 이를 아주 완벽한 구조라고 생각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CDS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1990년대까지 살로몬브러더스와 시티그룹의 글로벌 신용스왑 사업부를 이끌었던 로한 더글러스가 말했다.

머지않아 AIG 같은 회사들이 주택만 취급하지 않고 CDS를 발행해 그 주택에 기초한 모기지까지 다루기 시작했다. AIG는 규제 금융을 받을 무렵 보유하던 CDS가 4400억 달러에 달했다. CDS 시장에 전통적인 보험방식을 적용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통적인 보험 사건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A가 교통사고를 낸다 해도 이웃의 B가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누군가 빚을 갚지 않으면 연쇄반응이 시작돼 다른 사람까지 파산할 위험이 커진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하나의 대형 투자 주체를 괴롭히는 악재가 다른 주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대출기관들은 신용을 거둬들인다.

그런 거래를 통해 서로 엮인 너무 많은 기관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예컨대 리먼브러더스는 7000억 달러가 넘는 스왑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다수를 AIG가 보험으로 보증했다. 그리고 그 모기지 담보 증권에 부실이 생기기 시작하자 AIG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CDS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얼마 안 돼 AIG가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리란 게 확인해졌다.

AIG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구성종목이었기 때문에 AIG의 추가급락은 지수 전체를 끌어내려 패닉을 초래했다. 연방정부가 개입해 AIG를 구제한 것은 그 보험사가 CDS 시장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과 헤지펀드가 CDS 시장의 양대 주체였다면(CDS를 거래하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상쇄했다) AIG는 스왑을 제공하고 그 위험을 떠맡았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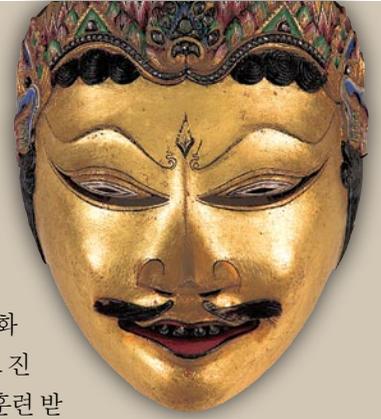


AIG가 파산하도록 방치했다면 그 회사로부터 CDS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모두 큰 손실을 입어 그들마저 신용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CDS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가 앞으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1월 규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CDS가 모든 죄를 뒤집어썼다”고 10년 전 비스트로 상품으로 시장을 개척한 듀혼이 말했다.

“누군가 총상을 입었을 때 총을 탓하는 격이다.” 그러나 AK-47 소총의 가두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CDS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법하다. “일부 투자자는 쉽게 곤경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스탠퍼드대의 경제학자 대릴 더피가 말했다.

그는 CDS가 “크게 잘못 사용됐다”고 보지만 그 상품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게다가 “그것을 금지하면 금융 공학자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또 다른 수단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금융가와 정가가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골머리를 앓을 동안 우리는 그들이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Indonesian Heritage Society)는 1970년에 발족하여 약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문화 유산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박물관등 문화 단체를 지원하며 각종 문화 활동을 해온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가 영어, 불어, 일어, 한국어(제 1주 제3주 화요일 9시 30분)로 진행하는 무료 안내가 매월 20여 차례 국립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연구투어 팀에서 훈련 받은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한국어로 박물관의 약 10만개 이상 되는 물품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뽑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게 된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는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회원들이 700여명에 이르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배우며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인도네시아 오지 여행, 문화체험 탐방, 다양한 주제별 스타디 그룹, 불어부, 일어부, 한국어부, 박물관 연구투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그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주로 수요 문화탐방반(Explorers)이나 스타디그룹, 일어부, 불어부 등에 속하여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한국어부에서 진행되는 자체 행사는 박물관 투어, 학교 프로그램, 사진동아리 등이다.



매년 9월 첫째 주부터 회원을 갱신하는 제도로 운영되지만,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센트랄 스나얀의 17층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400,000을 내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도서관 021) 572-5870)

내년 2월에 시작되어 12주간 진행되는 박물관 투어 Workshop 영어 트레이닝에 참가하실 분은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안내

모나스 광장 맞은편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하고 훌륭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를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속의 한국어 가이드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다.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이 박물관 투어는,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에서 정규 가이드 과정을 마친 다섯 명의 한국인 가이드들이 인도네시아 문화 알림으로 무료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친구와 때로는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매혹적인 이 나라 문화에 흠뻑 빠져 보는 것도 모처럼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되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음.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할 수 있다.

공동 회장:

이종숙 0812 838 1294

이수진 0816-1300-210

교민을 위한 초청 강연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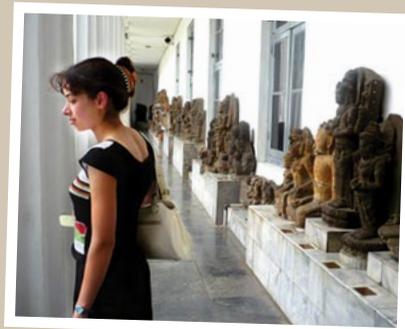
도자기 수집가이며, 역사가인 한인예총 신상석 회장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역사의 향기”

일시: 11월 29일 토요일 10시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

센트랄 스나얀 1 17층(스나얀 플라자 소고 바로 옆 건물)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 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 SBY 대통령, 경제성장률 6% 유지할 것을 당부

SBY 대통령은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향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당부하였다.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1997년 당시의 환란과는 성격이 다르며 시장의 동요, 일부 정책의 불일치, 정국의 안정성, 외부 요인(배럴당 20불이 하락한 국제 유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BY 대통령은 거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인니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6.3%이지만 최소한 6%대를 유지할 것을 부통령 및 내각, 기업가들에게 당부하였다.

● SBY 대통령, 금융위기 대처위한 10대 과제 제시

SBY 대통령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음의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
2. 수출에 주력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률 6%를 유지할 것
3. 2009년 예산의 최적화로 인프라, 빈곤 문제, 전력공급, 식량, 유통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
4. 각 기업들은 국가 세수의 확보와 노동력 흡수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로 이를 지원할 것
5.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않은 아시아 주변국들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각 기업은 창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향상에 힘쓸 것
6. 내수경제 활성화화를 위하여 국산제품 사용을 증진시키고, 정부는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7. 정부, 중앙은행, 은행권,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할 것
8. 이기주의를 버릴 것
9. 선거의 해인 2009년을 맞이하여 모든 정책은 당락이 아닌 국민을 위해 만들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10. 모든 관계자들은 국민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힘쓸 것

● 상공회의소 재정위원장, 세계 경제 불황 경고

Bambang 상공회의소 재정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 및 유럽의 금융권이 마비되고 이로 인하여 국제 경제에 불황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니는 국익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식량, 에너지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쌀 등의 수입이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역부장관,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 다각화를 촉구

Mari 무역부 장관은 수출지역의 다각화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니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2% 정도로 2003년 당시 40%에 비하여 일정 수준 다각화를 이룬 상태이나 식량 등은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다. 향후 인니는 중동, 러시아, 중부유럽, 아시아 개도국, 중국, 인도로의 수출량을 늘려 다각화를 할 예정이다. Mari 장관은 또한 내수시장의 강화를 위하여 CPO등의 생산품이 자국내에서 소비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다. Mari 장관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의 수출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나 금년도 수출증가 목표인 12%는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기업부장관, 공기업 자금을 국내로 회수할 것임을 시사

Sofyan 공기업부장관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등 외화자금을 국내로 회수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Sofyan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각 공기업의 금융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Pertamina(석유), Telkom(통신), PLN(전력), Aneka Tambang(광산), PGN(가스) 등 공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회수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 경제전문가, 현재 시점이 샤리아 금융발전을 위한 적기로 평가

Sula 샤리아 경제전문가는 미국발 자유 자본주의가 조심해야 할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사태를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물경제를 우선시 하는 샤리아 경제는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중의 금융권 역시 이번 미국발 위기를 거울삼아 샤리아가 목표하고 있는 실물 우선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샤리아 경제전문가들

은 서구의 자유자본주의 역시 본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니 향후의 정책들에서 샤리아 금융 원칙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져 샤리아 금융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SBY 대통령, 미국발 경제위기가 향후 2년 이상 인니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SBY 대통령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향후 최소 1년에서 2년간 인니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게 확고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모니터링 정책과 재정 정책의 확립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경제성장, 투자,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정확한 지표와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경제통계 / 재계동향

● **정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Standby loan 받기로 약속**

Paskah Suzetta Bappenas 장관은 워싱턴에서 가진 세계은행과 IMF와의 회의에서 인니의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내려갈 경우 50억불 규모의 Standby loan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Paskah 장관은 금번의 경제위기가 1998년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에 비교하여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본

Standby loan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및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skah 장관은 내수경제의 활성화야말로 인니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하여 이슬람개발은행과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조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주식 거래중지된 Bakrie그룹의 6개 종목 중 2개 종목 거래 재개**

자카르타 증권거래소는 금일(10.17) Bakrie 그룹의 여섯개 종목 중 3개에 대해서만 먼저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Bakrieland Development와 Bakrie Sumatera Plantation 두 종목은 금일 거래 재개 될 것이며 나머지 한 종목은 증권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Bakrie 그룹의 지주회사인 Bakrie & Brothers는 어제 Avenue Luxembourg SARL 사가 Bakrieland 주식 15.3%(4,600만불)의 인수 의향을 밝혔으며, Longines 사가 Bakrie Sumatera Plantations의 주식 5.6%(1,000만불)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Bakrie 그룹은 Bakrie Telecom과 Bumi Resources의 주식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0.7 이후로 일시 거래중지된 여섯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PT Bakrie & Brothers Tbk (BNBR)
2. PT Bakrie Telecom Tbk(BTEL)
3. Bakrie Development Tbk(ELTY)
4. PT Bakrie Plantation Tbk(UNSP)
5. PT Bumi Resources(BUMI)
6. PT Energy Mega Persada Tbk(ENRG)

● **국회, 2009년 인플레이션 목표 6.2%에 동의**

국회 예산위는 2009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부 제시한 7.0%보다 낮은 6.2%로 의결하였다. 국회 예산위는 국제유가의 하락등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예산안 상의 유가는 배럴당 80불이며 기준 환율은 달러당 9,400루피아이다.

인니로컬 / 개발관련사항

● **석탄회사들, 외국 구매자들과 석탄수출 계약 재협상 시작**

거대 석탄회사들이 외국의 구매자들과 석탄수출계약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금번 재 협상은 석탄의 수출가격이 내수 판매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 및 재협상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Bumi Resources는 국제 석탄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산량을 6,200만톤 까지 확대하고 판매가격은 \$70/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PLN은 내년도 석탄 구매가 \$80/톤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관련사항

● **한국 프랜차이즈, 인니시장 진출기회 모색**

한국의 7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니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북덕규 Korea Business Center 차장은

인니가 2억 3천만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가 끌라빠가딩과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입점하였으며, 또한 6개월 전에 농협 목우촌이 진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니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KBT (빵, 과일음료)

FNB Korea (인삼함유 주)

Ojeomo (닭 튀김)

Daehoga (죽 및 건강식품)

Diz. Co., Ltd

Indo Food System (레스토랑, 맥주)

국제관련사항

● 노르웨이, 어업분야 훈련 및 신규에너지 프로젝트 위해 960만불 원조

노르웨이 정부가 어업분야 훈련을 위한 860만불과 신규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100만불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인니 정부와 약속함에 따라, 양국간의 어업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원받은 860만불은 향후 Indonesian-Norway Fisheries and Aquaculture Cooperation Committee의 구성에 사용될 것이며, 100만불은 족자의 바론 지역에 Renewable Energy Park 건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중국산 멜라닌 함유 유제품 관련 동향

식약청은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멜라닌에 오염된 중국산 유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배급자들을 모두 형사처벌(5년징역 또는 20억루피가 이하의 벌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안전을 위해 외국제품에 ML 마크, 국내산제품에

MD 마크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MD 마크를 받은 국내산 제품은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호주, 뉴질랜드 산 유제품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멜라닌이 검출된 중국산 유제품의 압류 조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소매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식약청은 9.18부로 중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식약청에 등록된 19개의 중국산 유제품 중 6개의 아래 제품에서 멜라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1. Guozhen 분유
2. Oreo Stick Wafer (2종)
3. M&M (2종)
4. 스니커즈

또한 식약청은 불법적으로 시장에 유통된 중국산 유제품 6종에서 모두 멜라닌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1. Shanghai Guan Sheng Yuan 사의 White Rabbit 사탕
2. Wuzhou Bingquan 사의 Soybean Drink
3. Soyspring 의 인스턴트 우유 씨리얼
4. Soyspring 의 땅콩 우유 등

● 인니-중국, 교역액 목표 초과 달성

주중국 인니대사는 인니와 중국이 2010년 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액 300억불을 그 이전인 2009년 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이 2008년 까지의 교역액 목표치로 상정한 200억불은 이미 지난 2007년 250억불을 기록함으로써 달성되었다. 2008년 현재 양국 교역 총액은 280억불이며, 매년 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일본석유회사 Inpex, 일본 수출용 해상 LNG생산공장 설립 최종 협상

일본의 석유가스회사인 Inpex(정부지분 29.35%)는 세계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상 LNG생산공장 설립계획이 올해 안으로 인니 정부의 동의를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npex는 총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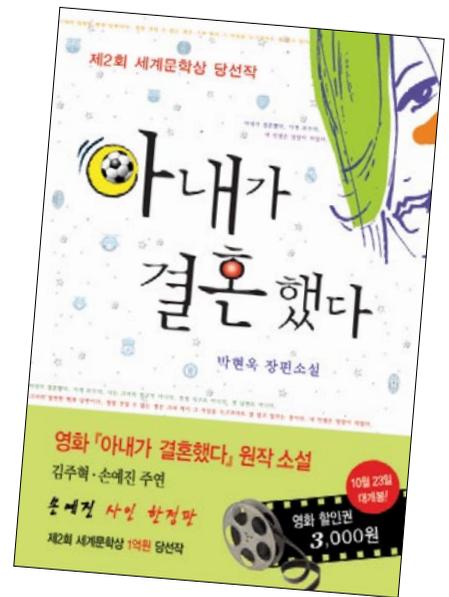
엔의 자금이 필요한 본 공장이 2015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Masela 블록 연간 450만톤 규모의 LNG를 일본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Inpex는 프랑스회사와 합작으로 호주 다윈지역에 연간 800만톤 규모의 LNG설립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내 LNG 수입수요의 20%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중결혼을 하려는 아내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역동적인 축구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시킨 박현욱 장편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이다. '비독점적 다자연애'의 결혼관을 갖고 이중결혼한 아내를 둔 '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독점적 사랑과 결혼제도의 통념에 대해 솔직하고 명쾌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프로그래머인 인아는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로 '나'와는 연인 사이다. 나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 끝에 그녀와 결혼에 골인하지만 둘 중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미련 없이 놓아주기로 약속한다. 아내의 일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낸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아내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그 남자, 둘 다 사랑하니 이혼을 원치않고 복혼을 하겠다는 그녀의 말에 온갖 회유와 협박, 설득을 해보지만 결국 나는 아내를 절반만 소유하는 생활을 시작하는데...

스포츠 매니아인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인생, 축구 공식의 교집합을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축구 역사, 현재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인생과 그를 둘러싼 에피소드, 축구와 관련된 사건, 축구 상식 등의 생생한 자료들을 사건과 상황의 흐름에 절묘하게 끌어들여 서사와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활력과 리얼리티를 불어 넣는다. 또한 결혼과 성,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배반하는 글들을 치밀하게 배치해 밀도 있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이를 재치있고 유쾌한 작가의 입담으로 버무려내고 있다.



저자 박현욱 | 출판사 문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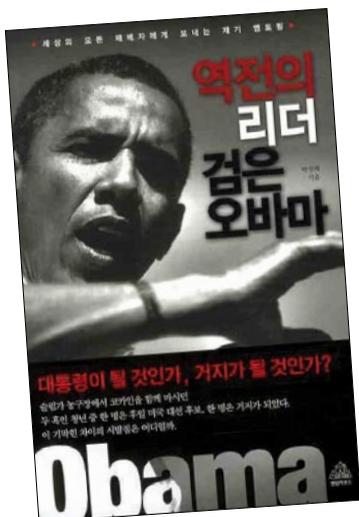
역전의 리더 검은 오바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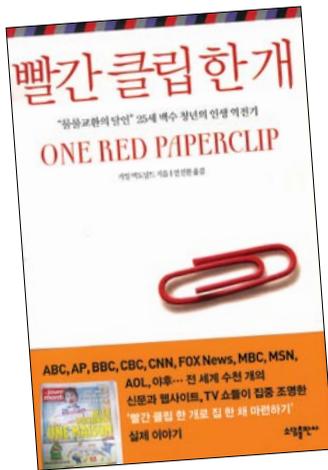
저자 박성래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왕따소년에서 정치 신데렐라로 변신한 버락 오바마의 도전과 열정!

이 책은 KBS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미국 대선현장을 발로 뛰며 오바마를 밀착취재하고 조사하여 쓴 글이다. 2004년 미대선평별취재팀으로 워싱턴에 특파되었던 저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단 한 차례의 연설로 전 미국인을 사로 잡으며 마침내 차기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른 버락 오바마의 삶의 궤적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본문은 오바마의 찬란한 역전 비결, 오바마가 미국인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차분히 따라간다. 미국 사회 최대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오바마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복잡한 미국 대선 관점 포인트를 소개한다. 또한 공화당 후보인 매케인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상원의원 시절에 오바마와 매케인이 펼쳤던 이메일 전쟁을 들려준다.





빨간 클립 한 개

저자 카일 맥도널드 | 역자 안진환 | 출판사 소담출판사

물물교환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한 25세 백수 청년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 책은 빨간 클립 한 개로 1년 만에 집 한채를 갖게 된 캐나다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빨간 클립 한 개의 교환을 시작으로 총 14번의 교환 끝에 어떻게 집 한 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를 한 편의 소설처럼 엮었다. 카일 맥도널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물물교환 전 단계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의 개념', 새로운 문화혁명을 가능하게 한 웹 2.0과 블로그의 역할을 알려준다.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성공 생활습관도 엿볼 수 있다.



골프에서 길을 묻다

저자 이학오 | 출판사 쌤앤파커스

『골프에서 길을 묻다』. 아마추어 골퍼, 투어 프로, 티칭 프로 등 골프를 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골프 멘탈' 책이다. 저자는 골프를 단순히 육체의 스포츠로 보지 않는다. 몸으로 익히는 기술인 골프를 자신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수련 과정을 통해 스코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한다.

골퍼들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원리를 다룬다. 무심이 되는 법, 평상심을 유지하는 법, 집중하는 법, 순간을 사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들을 프로 골퍼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실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바퀴 탈것 - 자전거의 역사 문화 오늘

저자 데이비드 V. 헤리히 | 역자 김인혜 | 출판사 알마

1,700년대 후반, 교통수단이라고는 말과 마차뿐이었던 그 시절에 발명가들은 사람의 힘으로 운행 가능한 탈것을 발명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 발명품은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네 바퀴 탈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200년이 흐른 후,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전거'가 탄생하게 된다.

자전거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의미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대량 생산과 함께 산업혁명·자본주의 역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초기 양산 자전거 광고의 아이콘은 오늘날의 레이싱 모델과 흡사한 여성 이미지였다. 자전거 여명기로 와서는 의사, 신학자, 반여성주의자, 그리고 언론들은 자전거를 위험한 깜짝 유행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렇게 자전거의 문화사를 방대하게 담아낸다.

자신을 더듬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272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80 1075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지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임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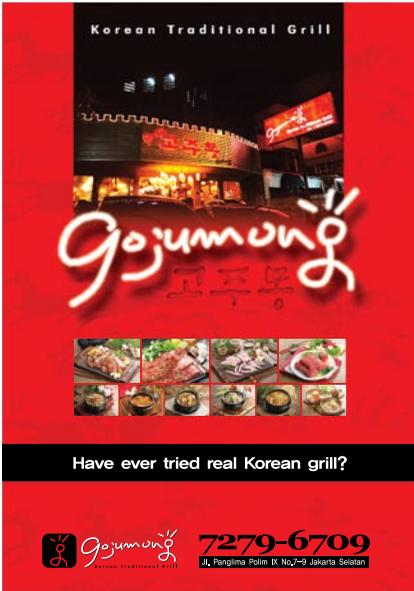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생활정보 가이드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bo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 9 Jakarta Selatan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심리검사 학습능력 향상 진로탐색

知彼知己 百戰不殆

知己 - '자신'을 아는 방법,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 있습니다. 인지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학습 전략과 기술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문심리검사와 학습 케어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K-WISC / K-WPPSI ALSA 청소년 학습전략검사
성격유형검사 MBTI / MMTC LST 학습기술진단검사
직업흥미&진로성숙도&직업적성검사 자기조절학습법

021-546-4531 | 0813-8082-8282

리뽀까라와찌 아미르다푸라 아파트 A동 로비 G호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 INDONESIAN?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인도어 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 Jend. Sudirman Kav. 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 Metro Dut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d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도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리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5694	0805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	-----	------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눈술	4586	1233
뽀뽀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발리 (지역번호 0361) ↓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커피: 밀크,인삼,블랙

2가지 맛 선택

JOA Coffee
Korean Red Ginseng

그윽한 인삼의 향기를 느껴세요
Minuman kesehatan khasiatnya terasa bangget!

자판기 판매 및 임대 (Mr.박)
HP. 0815 7432 7769
Esia. 021) 9940 9200

40년 전통의 Lim Tailor
(Mr. 임연식)

자카르타 남성의 멋을 책임집니다.

양복점 오픈
(청기와 앞)

· 좋은 가격, 고급 퀄리티
· 각종 회사 유니폼을 맞춰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자택으로 방문하여 맞춰드립니다.

0811 1873 382 / 0815 1059 0827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단 것은 질색하면서 손님이 대부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케이크 가게를 차린 엉뚱한 사장 진혁(주지훈).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잡은 서양골동품점을 개조해, 몇 백만 원짜리 엔틱 식기에 케이크를 담아 내놓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별난 케이크숍 '엔틱'을 오픈하고 업계 최고라 불리는 파티쉐 선우(김재욱)까지 영입한다. 그런데 선우는 하필이면 고교시절 진혁에게 사랑을 고백해왔던 꺾끄러운 동창생! 거기다 누구나 첫눈에 반하게 만드는 '마성의 케이'로 끊임없이 남자 문제를 일으키는 통에 몇 달째 직원조차 구하기 힘들다. 결국 선우의 케이크 맛에 홀딱 반한 케이크광 기범(유아인)이 주방 보조이자 견습생으로 들어오고, 진혁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디가드 수영(최지호)이 서빙을 맡게 된다.

마침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엔틱은 잘생긴 남자들만 모인 케이크숍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성업이다. 그런데 이 네 남자, 멸망한 겉모습들과는 달리 무언가 수상하다! 남자들과는 거침없이 복잡한 연애를 즐기는 마성의 케이 선우가 어찌된 일인지 여자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심각한 여성공포증이 있고, 곱상한 외모와는 정반대로 거친 성격의 기범은 알고 보니 최연소 동양챔피언이었던 전직 복서로 밝혀지고, 몸짱 보디가드 수영은 허우대가 무색한 사고뭉치로 오히려 늘 진혁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가장 의문스런 일은 수다쟁이 호색한 진혁이 가족만 나타나면 품행 방정한 제벌 2세 도련님으로 돌변하는 것인데...! 겉만 보곤 도저히 알 수 없는 알쏭달쏭 네 남자, 다들 무슨 사연일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그녀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다.

“너의 자유로운 연애를 종식시키기 위해, 너를 연애의 무덤 ‘결혼’으로 데려가리라!”

난 그녀의 친구가 아니다. 전남편도 아니다. 엄연한 현재의 남편이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했다!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덕훈은 인아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단, 그녀의 자유로운 연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러던 어느 날 덕훈에게 찾아온 인아의 충격 선언.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인아는 그놈과도 결혼을 또 하겠다는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한다.

과연 그놈을 무찌를 것인가?

그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반만이라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귀여운 외모와 넘치는 애교, 현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면모와 남자 못지 않은 축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아. 말까지 척척 잘 통하는 그녀를 만날수록 덕훈은 보통 여자와 다른 그녀의 특별한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그러나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픈 덕훈과는 달리, 덕훈을 사랑하지만 그'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너무나 자유로운 그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한 그녀는 내꺼라는 것!”

결혼만 하면 게임 끝일 줄 알았다!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있던 어느 날, 불안함에 폭발하여 따져 묻는 덕훈에게 인아는 다른 남자와 잤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핫김에 이별을 선언하지만,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커져만 가는 그녀에 대한 마음에 괴로운 덕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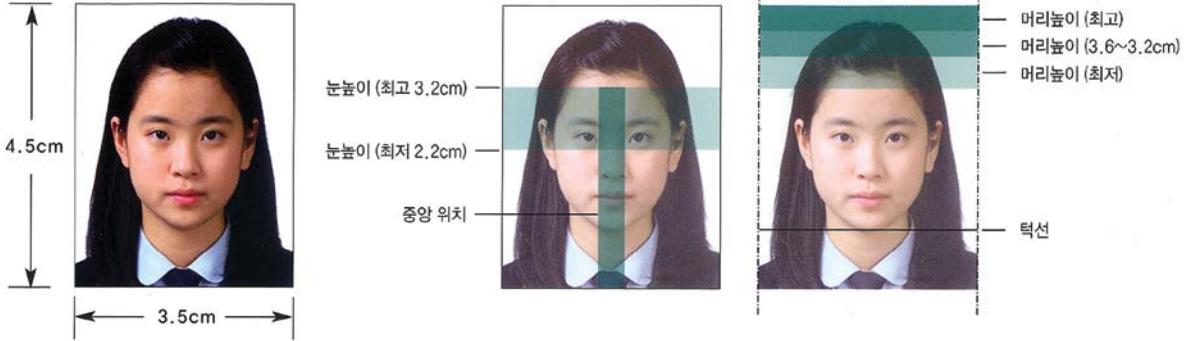




11월 공지 사항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표준사진〉



전자여권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11.24일 부터 시작되는 전자여권 발급 신청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과 여권 발급신청서, 수수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②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go.kr>)
-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사진 규정은 상기 그림 참조



태권도 시범행사 개최 안내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행사가 대사관 주최로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08.11.16 (일) 오후 4시 - 6시
- 장소(체육관명) : Gor II Sportclub Pertamina Simpruk
 - 주소 : Pertamina Learning Center, Jl. Teuku Nyak Arif, Jakarta Selatan
 - 연락처 : Mr. Mansyur/720-8159, 0812-817-4502
- 관람 방법 : 무료 입장
- 주변 현지인들에게도 관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문의 : 520-1915 Ext 247

제6회 국제친선바둑대회 안내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4개국 대항 친선바둑대회 매년 한국,중국,인도네시아,일본 바둑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대항 단체전과 단소유자와 급소유자로 나뉘어 개인 토너먼트전이 펼쳐집니다.

- 일시 : 2008년 12월 14일(일) 09시~17시
 - 장소 : 일본국제교류기금 자카르타일본문화센터
 - 주최 : 일본국제교류기금 자카르타일본문화센터
- Summitmas 1,2nd Floor,
 Jl. Jend. Sudirman Kav.61-62 Jakarta

방재웅 (한국바둑협회)
 Tel : 021-591-8625
 HP : 0816-995-495
 Email : jwbang7100@hotmail.com

유이 에이코 (일본재단)
 Tel : 021-520-1266
 HP : 0811-855-416
 Email : yui@jpf.or.id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의사항 안내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
오니, 관련업무 처리시 참고바랍니다.

1. 한-아세안 FTA C/O(AK-Form) 발급시 C/O 뒷면에 부착된
Overleaf Note를 반드시 출력, 수입업자에게 송부
2. C/O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
3. C/O에 필수 정보(특히 8번란 원산지 기준)가 누락되지 않
도록 기재

담당 :

김형태 참사관,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외국인 관련시설 출입 및 치안불안 지역 (파푸아) 여행시 신변안전 주의

1. 9.20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메리어트 호텔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60여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당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이슬람권에서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
분들께서는 르바란 전후 외국인 관련시설(호텔, 나이트 클
럽 등) 출입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9 자카르타 소재 모 호텔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바 있음
을 참고바라며, 외국인 관련시설 출입시 가급적 출입구에서 면쪽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2. 한편 최근 파푸아 지역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활동이 증
가하는 가운데 프리포트 광산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발생하
는 등 동 지역 치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바, 교민 여러분
께서는 동 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무료법률상담 안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재인사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Tel. (021) 525-5959, 휴대폰 : 0816-1911245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
권, 소송·중재 등 법률문제 전반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대한항공 동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8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1:55	06:5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35	11:30	월,일
		00:45	08:40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7:15	23:25	월~,금
		20:05	02:15+1	토,일

2. 기간: 2008. 10. 26~

또한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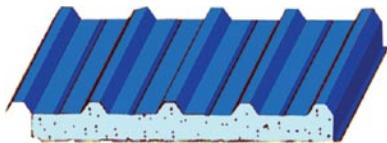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신제품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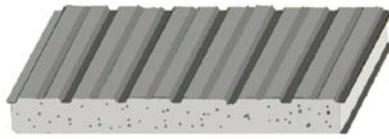
저희 **Pt. Aneka Panel Indonesia**에서는 E.P.S Sandwich Panel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교민 여러분들의 사랑속에 새로이 지붕의 단열 및 방음 효과에 좋은 P.E(Polyethylene) Foam Panel 기계를 도입, 설치하여 8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주요 취급 품목

● E.P.S Sandwich Panel(난연)



Roof (A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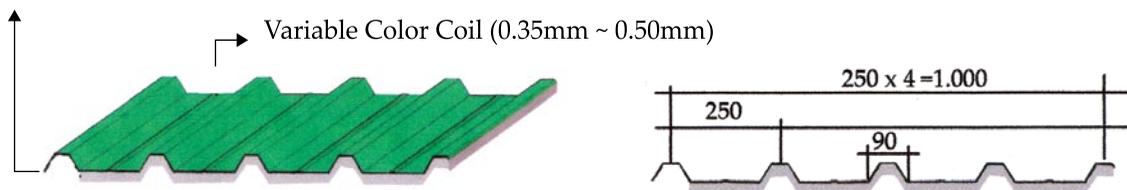
Wall (APW)



Partition (APP)

● P. E(Polyethylene) Panel(신 제품)

PE Foam(6mm + Al. ~ 8mm)



● Aluminum Door & Window (Naco, Wood)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 드립니다.

Api
Do it now!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R OF E.P.S & P.E PANEL)

Office : Jalan Gatot Subroto Kav. 58 Korea Center Bldg. 4th. Fl. Suite 401 Jak Sel 12950 Indonesia
Tel. : 62-21-521-2489, Fax : 62-21-527-7380

Factory : Jalan Desa Anggadita Kecamatan. Klari, Kabupaten Karawang Jawa Barat Indonesia
Tel. : 62-267-431-816, Fax : 62-267-431-817

e - Mail : cbw15@anekapanel.co.id

Contact : 62-811-956-227 (Mr. Choe), 62-813-1979-6183(Bpk. Adi)

인니 삼성전자 법인

2008 인니 최우수 기업



대통령상 수상



이종찬 법인이 “2008 PRIMANIYA 상”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역할과 한국 국가경쟁력 상승에 크게 기여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인니 삼성전자 법인은 92년 설립 이후, 현재 이종찬 법인을 비롯한 24명의 한국 주재원과 3000여명의 인도네시아 종업원, 8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금년에는 19억불의 매출**이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지속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PRIMANIYA 상은

기업들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신장률 및 인니 수출 기여도, R&D 투자 및 기술 현지화, 인니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니 최우수 기업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이다.

인도네시아 법인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Jl. Jababeka Raya Blok F29-33, Cikarang Industrial Estate, Cikarkang Bekasi 17530 (Tel:893-4005, Fax:893-5063)

인도네시아 영업본부

The Indonesia Exchange Building Tower 1, 7th floor, Jl.Jend.Sudirman Kav 52-53 Lot 2 Jakarta 12190 (Tel:5299-1777)

홈페이지 : www.samsung.com/id